

# 임업관측사업

- 2005년 사업결과와 2006년 추진계획 -

장철수	연구위원
석현덕	연구위원
이상민	전문연구원
민경택	전문연구원
손철호	위촉전문연구원

## 머 리 말

---

우리 연구원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임업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관측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5월 15일 밤 관측월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2004년도에는 관측 대상에 표고버섯을 추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한두 품목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임업관측사업의 목적은 임산물 시장의 단기 동향을 신속히 분석·전망한 결과를 생산 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수급 안정을 꾀하는 데에 있다. 생산 농가들은 관측 결과를 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생산량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산물 시장을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재배동향, 작황, 생산 동향, 가격동향, 수출입 동향을 월 단위로 분석해야 한다. 임업 관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망 내용을 수요자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은 재배 농가와 시장 참여자에게 관측월보를 신속히 배포하고, 이를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연구 자료는 2005년도 임산물관측 결과와 관측월보, 언론보도 내용, 2006년도 임업관측사업계획 등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이 임업관측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임업관측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산림청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 목 차

---

## 제1장 임산물관측사업의 개요

1. 임산물관측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임산물관측사업의 기본 방향 ..... 2
3. 임산물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 2
4. 기대효과 ..... 4

## 제2장 2005년도 임산물관측사업 추진결과

1. 임산물관측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 5
2. 임산물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 6
3. 임산물관측사업의 추진결과 ..... 7
4. 2005년도 임산물관측사업의 성과 ..... 9

## 제3장 2006년도 임산물관측사업 추진계획

1. 기존 관측대상 품목 및 내용 ..... 27
2. 기존 품목 세부추진계획 ..... 27
3. 신규 품목 추진계획 ..... 29
4.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30
5. 신규품목(대추)의 동향 ..... 31

## 제4장 임산부문 동향과 전망

1. 밤 ..... 33
2. 표고버섯 ..... 43

부록 1 임업관측월보(밤) ..... 55

부록 2 임업관측월보(표고버섯) ..... 85

부록 3 2005년도 임산물관측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 123

# 제 1 장

## 임산물관측사업의 개요

### 1. 임산물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1.1. 임산물 관측사업의 필요성

- 임산물 관측사업은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임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주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생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언제 판매할 것인지 하는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임산물생산계획의 수립과 출하조절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임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
- 그러므로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임산물에 대하여 시장동향이나 가격 및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현재대로 방치된다면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을 초래하게 되므로 산주를 포함한 생산농가의 임산소득은 더욱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

산물의 자료수집과 통합, D/B, 관측 및 관측결과물의 분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임산물 관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1.2. 임산물 관측사업의 목적

- 임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등을 위해 임산물 재배동향,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에 관한 중단기 예측정보를 개발하고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2. 임산물 관측사업의 기본방향

- 작황, 가격, 수출·입, 해외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임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율영농의 기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계 확립
  - 종합적 정보 분석 능력제고
  - 관측정보 분산체계 확립

## 3. 임산물 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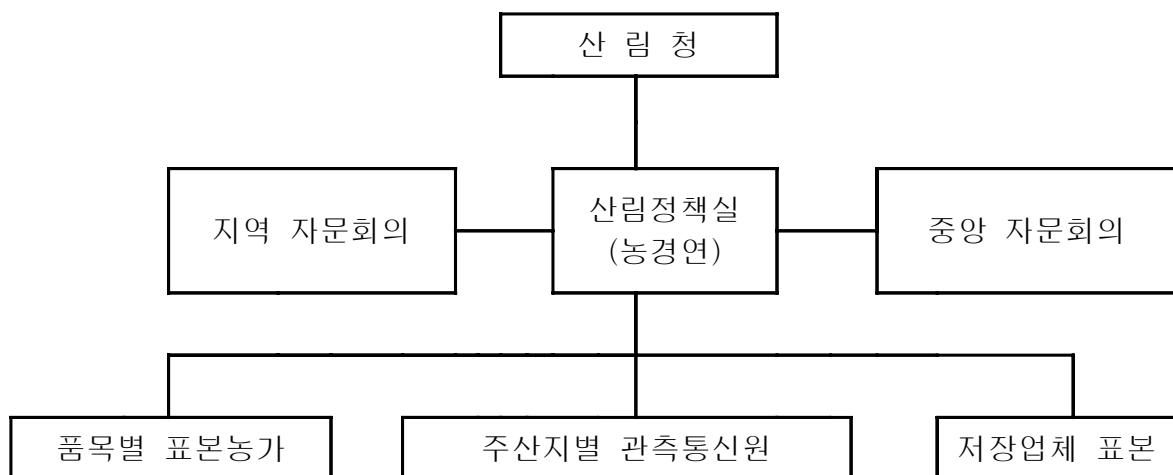
### 3.1. 임산물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 품목별 동향, 관측 및 전망(월보에서 발표)
  - 품목별 수급동향 및 단기관측
  - 품목별 작황 및 생산자 동향, 가격동향
  - 품목별 해외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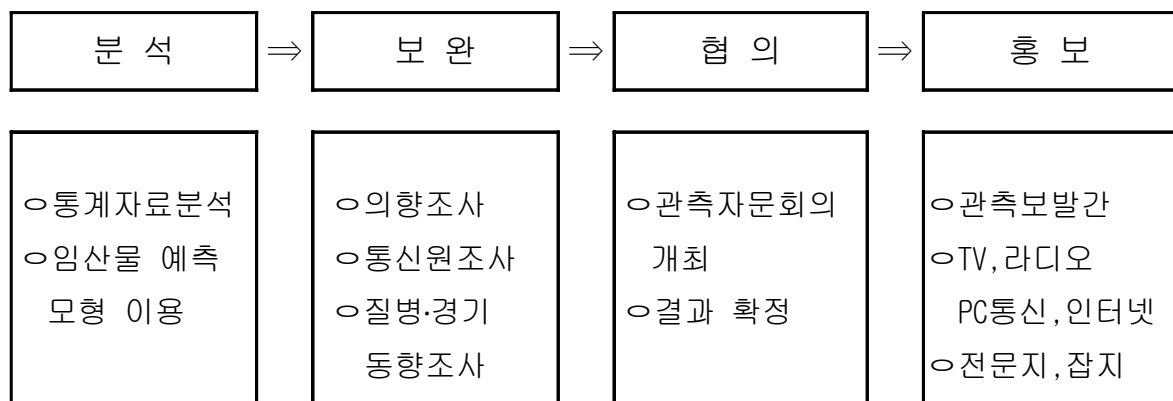
- 연차 동향 및 전망(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
  - 거시경제, 품목별 국내외 시장동향과 중장기 전망
- 관측/전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임산물 관측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개발·유지 및 관리
  - 관측 D/B구축 및 시황정보 제공
  - 단기 예측기법,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3.2. 임산물 관측사업 추진 체계

#### 3.2.1. 관측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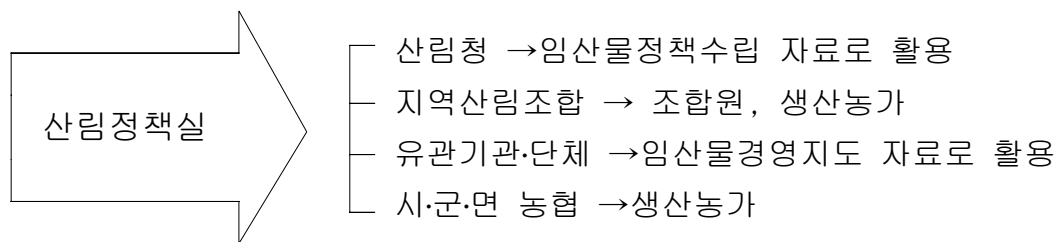
#### 3.2.2. 관측 방법



### 3.2.3. 관측결과 홍보

- 본안 홍보 : 임산물관측보, 인터넷
- 전단 홍보 : 필요시
- 해설 홍보 : 전문잡지, 신문, TV, 라디오

### 3.2.4. 홍보 체계



## 4. 기대 효과

- 임산물의 품목별 수급동향, 가격관련 동향 및 미래정보가 제시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배품목의 선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수급의 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임산물의 품목별 각종 정보가 인터넷, TV, 라디오, 분기 보, 월보 등을 통해 제공되므로 정보수집에 따른 고비용을 배제할 수 있고 또한 품목별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농산촌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

## 제 2 장

# 2005년도 임산물관측사업 추진 결과

### 1. 임산물 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 1.1. 대상 품목 및 금액

- 사업 금액: 2억원(품목당 1억원)

#### 1.2.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산지시장 동향
- 품목별 소비지시장 동향
- 품목별 저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 임산물 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 2.1. 관측 일정

##### □ 탐

- 준비: 2005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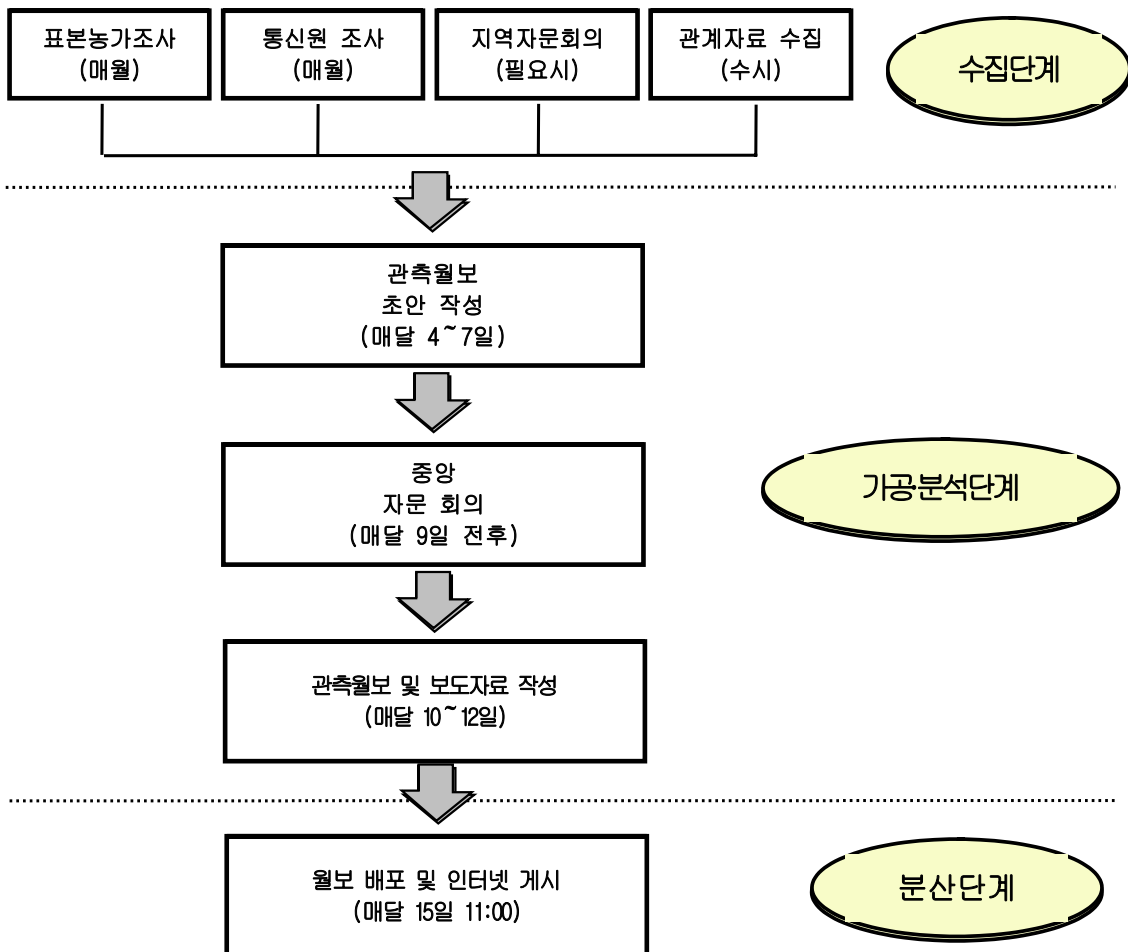


- 월보발간: 2005년 3월부터
- 임산물관측 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월보 : 격월(3,5,7,9,11월)15일날 발행하되, 밤의 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간이 보)를 발간
  - 발행부수 : 2,500부

□ 표고버섯

- 준비: 2005년 1~2월
- 월보발간: 2005년 3월부터
- 임산물관측 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월보 : 매월(12, 1, 2월 제외)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2,500부

2.2. 임산물관측사업 추진 체계



## 2.3. 관측결과의 분산체계

- 임산물관측보 우편 발송
  - 월보 (매월 15일 우송)
  - 산림청,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표본농가, 통신원, 광역시, 시·군 자치단체, 산지 농협
- 라디오, TV, 인터넷 및 PC 통신, 전문지 등에 게시
  - KBS 라디오, TV 등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 PC통신 및 각종 전문지에 게시

## 2.4. 중장기관측

- 2005년 농업전망대회에서 임산물 수급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발표

# 3. 임산물 관측사업 추진결과

## 3.1. 표본농가 및 통신원

### □ 밤

- 표본농가 및 통신원 수: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통신원 23명을 유지하되 연령, 재배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 표고버섯

- 표본농가 및 통신원 수: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통신원은 연령, 재배경력,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27명으로 하되 임업관측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선정

## 3.2.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밤은 현행 지역자문위원과 중앙자문위원 중 현지실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일부 교체·운영하였으며,
- 표고벼섯에 대하여는 지역자문위원 및 중앙자문위원을 임업관측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밤과 유사한 자격 수준을 갖춘 인원을 확보, 선정 및 운영하였음.
  - 밤: 지역자문위원 - 12명, 중앙자문위원 - 11명
  - 표고: 지역자문위원 - 27명, 중앙자문위원 - 11명

### □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등 월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생산자단체대표, 유통업체 대표, 산림조합중앙회, 산지농협대표, 수출입조합대표, 연구원 등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였음.
- 밤: 산림청 임산물 이용과 산림소득계장, 산림청 정보통계과 통계계장,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수과, 산림조합중앙회 유통부 실장, 전국 밤재배자협회장, 부여 밤영농조합장, 수출입조합전무, 신광상회대표, 전국 단위농협밤협의회장, 산청군 울림회장
- 표고: 산림청 임산물 이용과 산림소득계장, 산림청 정보통계과 통계계장,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 산림조합중앙회 생명과학연구소 과장, 산림조합중앙회 유통부 실장, 전국 표고재배자연협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처 농산부장, 이왕상사 고문, 전국 톱밥표고재배협회장, 전국단위농협표고협의회장(장흥 유치농협장), 천안표고유통공사 대표
- 일시: 월보 발행달의 9일을 전·후로 당 연구원 및 주산지에서 개최

## 3.3. 임산물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임산물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밤 생산, 유

통, 가격, 수출·입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월별 관측 보와 연차 전망 등 단기 및 중·장기 관측결과를 게재하여 운용하고 있음.

- 산림청 홈페이지에 임산물관측정보 시스템이 링크되어 있어 산림청홈페이지에서 바로 임산물관측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3.4. 관측보 발간 부수 및 배포

#### □ 관측보 발간 일정 및 부수

(단위: 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월보	밤	-	-	2,500 (2,500)	-	2,800 (2,500)	-	2,800 (2,500)	2,800 (2,500)	3,000 (2,500)	3,000 (2,500)	3,000 (2,500)	-	19,900 (17,500)
	표고	-	-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	22,500 (22,500)
합계	-	-	3,000 (5,000)	1,500 (2,500)	5,300 (5,000)	2,500 (2,500)	5,300 (5,000)	5,300 (5,000)	5,500 (5,000)	5,500 (5,000)	5,500 (5,000)	-	42,400 (40,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 당시의 발간예정부수임.

- 계획 수립 당시에는 월보를 총 40,000부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측월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총 2,400부를 늘린 42,400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음.
  - 밤(연 7회): 17,500부 발행 예정 → 19,900부 발간, 2,400부 증가
  - 표고(연 9회): 22,500부 발행 예정 → 22,500부 발간
-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여 관측보가 증가한 것은 관측보에 대한 생산농가의 관심증대와 함께 지역 및 통신원 간담회, 중앙자문회의 등을 통해 생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후반기에 관측보가 늘어남으로서 내년부터는 관측보가 좀 더 늘어날 전망

### 3.5. 관측결과에 대한 언론 홍보

- 2005년 농업전망에서 임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가 농업전문방송과 YTN 등을 통해 중계가 되었고 KBS, MBC, SBS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KBS 라디오의 “밝아오는 새아침”프로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관측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였음.

- 또한 각종 농업 및 임업관련 전문지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관측보는 발행하는 달의 20일을 전후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등 8개 전문지에 게재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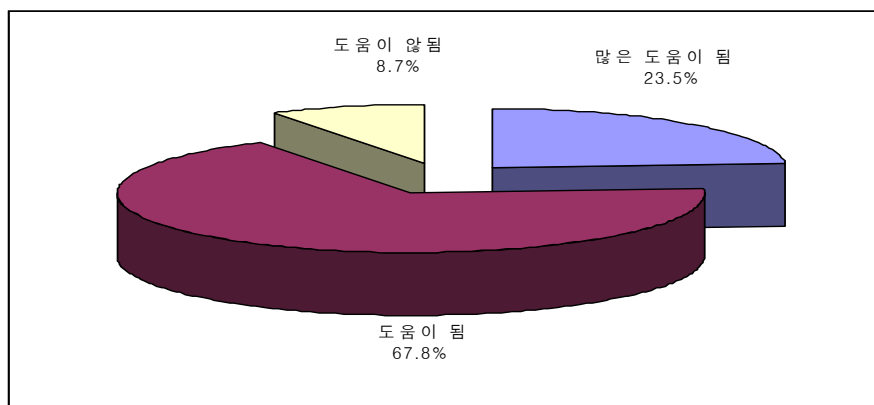
### 3.6. 중장기관측

- 2005년 농업전망대회(2005.1.)에서 「임산물 수급 동향: 밤 및 표고버섯」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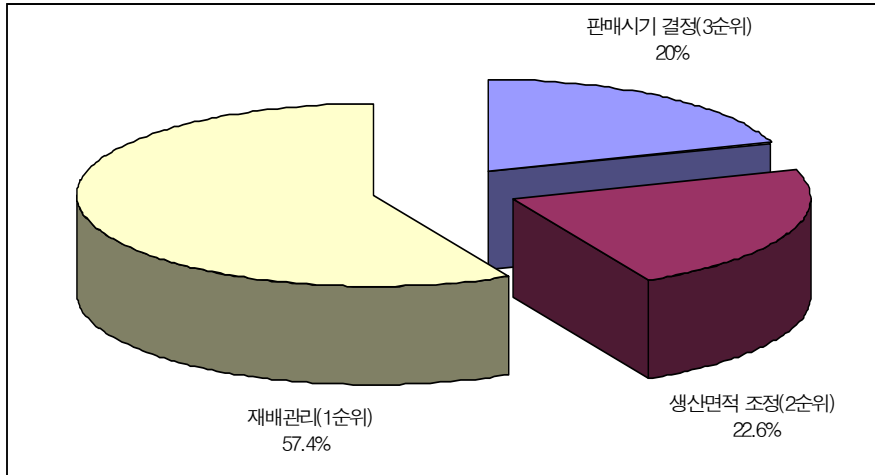
## 4. 2005년도 임산물관측사업의 성과

### 4.1. 밤나무 재배자 의식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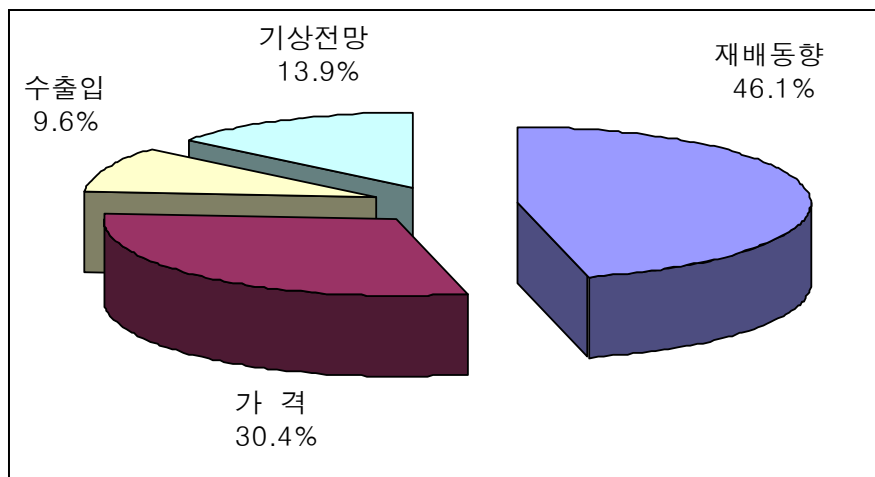
- 임업관측(밤)월보발간에 대한 의식조사가 표본 농가 및 통신원, 지역자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방식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음.
- 월보로 제공되고 있는 관측정보가 밤 생산농가의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23.5%, 도움이 되었다가 67.8%, 도움이 안 된다가 8.7%로 91.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제공이 밤 재배농가의 재배 및 생산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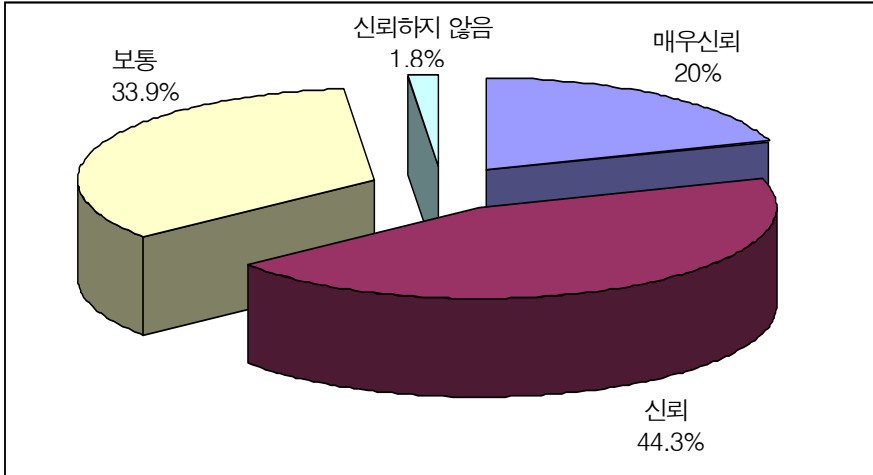
-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밤 재배관리가 1순위(57.4%), 생산면적 조정이 2순위(22.6%), 판매시기 결정이 3순위(20%)인 것으로 나타났음.



- 관측월보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동향이 46.1%, 가격동향이 30.4%, 수출입동향이 9.6%, 기상 동향 및 전망이 13.9%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관측월보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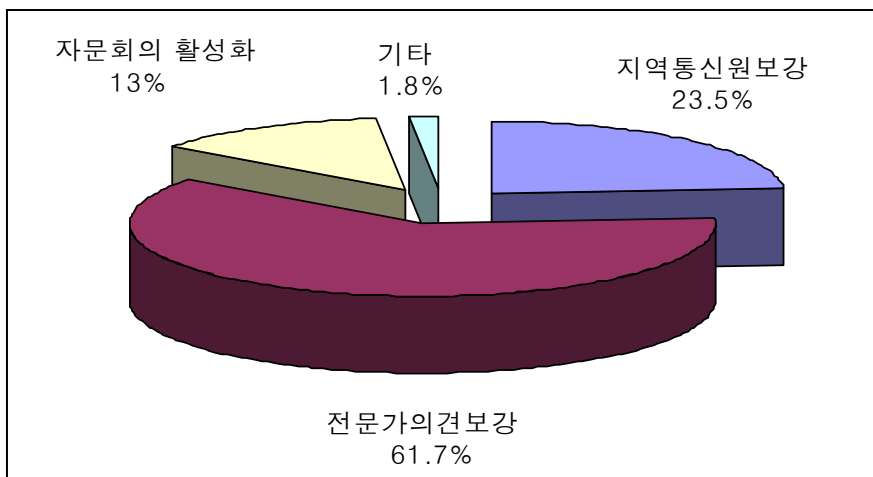


-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가 20%, 조금 신뢰가 44.3%, 보통 33.9%로 신뢰수준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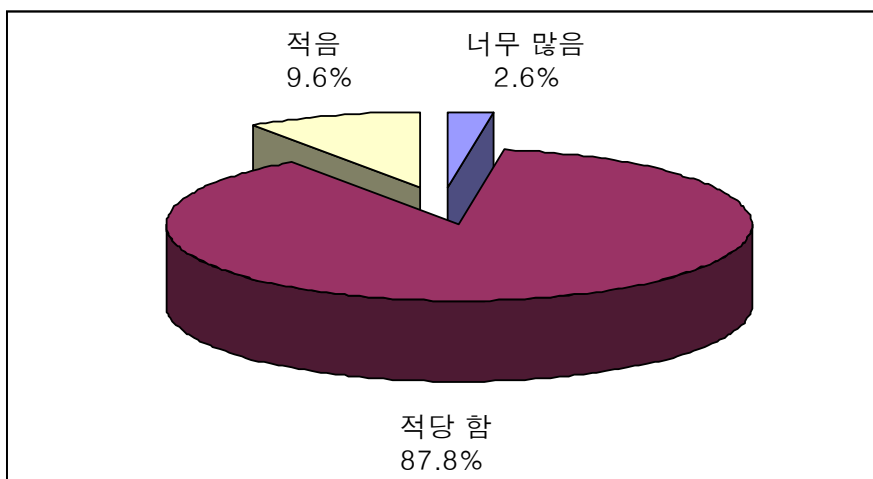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를 현재보다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통신원 등을 보강하여 좀 더 현실감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가 23.5%, 밤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한 보강이 61.7%, 관측자문회의의 활성화 13%, 기타 1.8% 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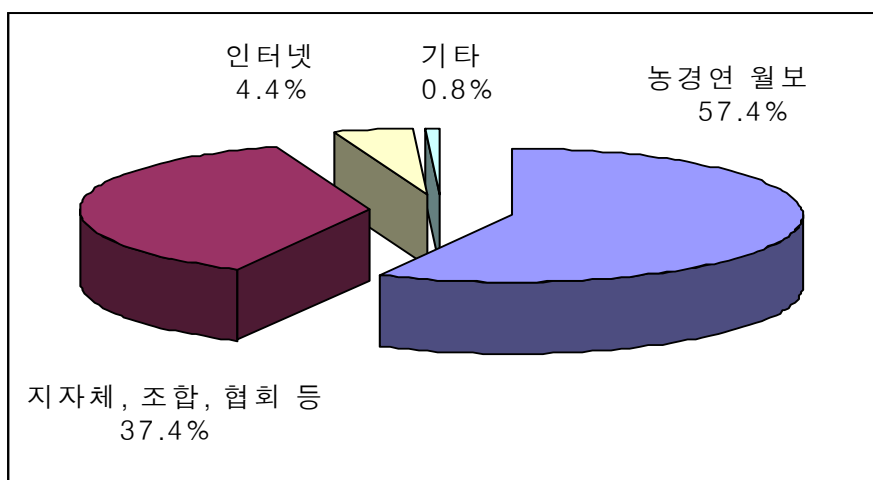
- 따라서 지역통신원의 보강과 함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밤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측월보의 내실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관측정보지의 발간회수 및 발간되고 있는 지면의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발간회수가 현행 7회(3,5,7,8,9,10,11월)는 적당함 87.8%, 적음 9.6%, 너무 많음이 2.6%로 나타나 발간회수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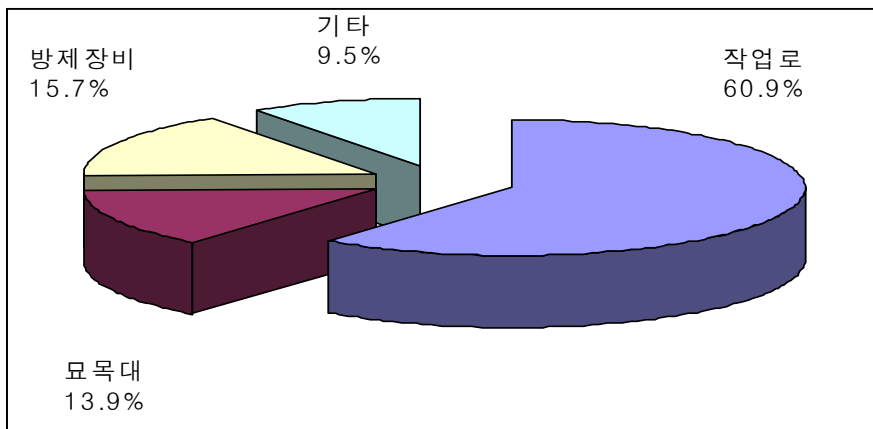


- 현재 밤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농경연에서 제공하는 월보(우편송부)가 57.4%, 지자체, 조합,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서가 37.4%, 산림청, 농경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4.4%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현지조사결과 산림조합이나 면단위 농협, 지자체의 경우 면사무소, 협회의 경우 지역의 울림회, 작목반 단위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측월보의 발행부수를 증가시켜 많은 생산농가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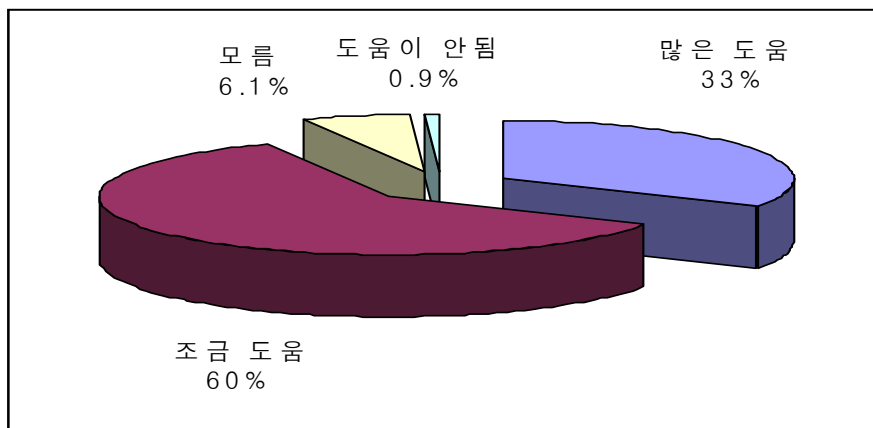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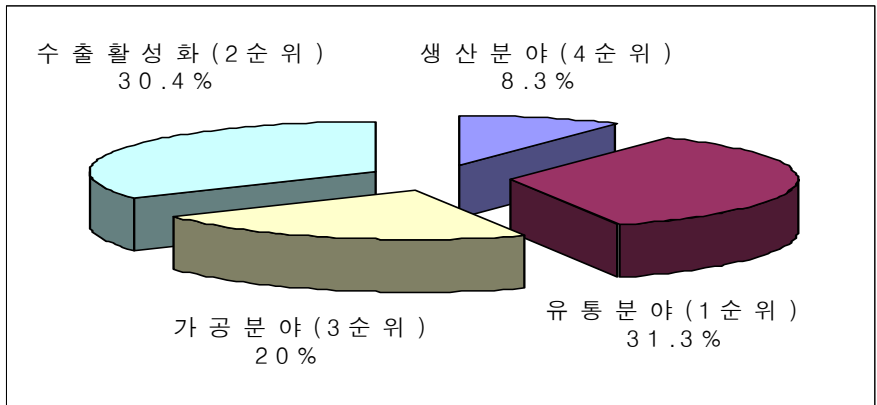
- 밤나무 재배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7.8%가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60.9%가 작업로, 13.9%가 묘목대, 15.7%가 방제장비, 9.5%가 기타(저온 저장고 등)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작업로의 개설에 대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며, 전체적인 정부지원혜택비율은 2004년도 60%에서 87.8%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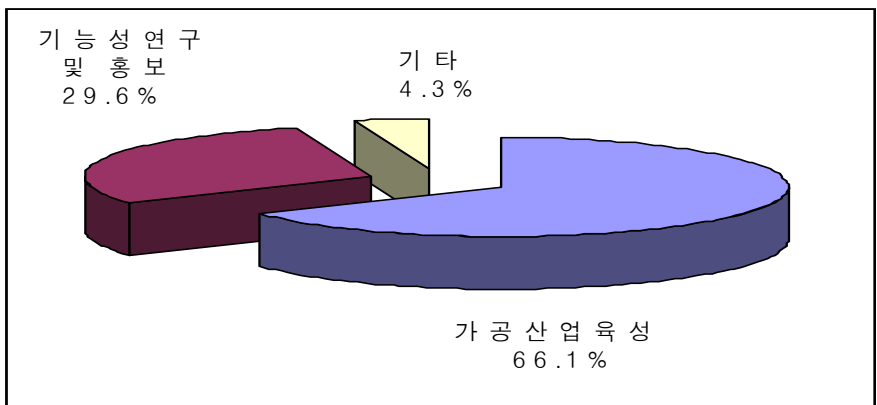
- 밤나무 재배와 관련해서 33%가 정부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60%가 조금 도움이 되었다, 6.1%가 모름, 0.9%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정부지원이 밤나무 재배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모르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부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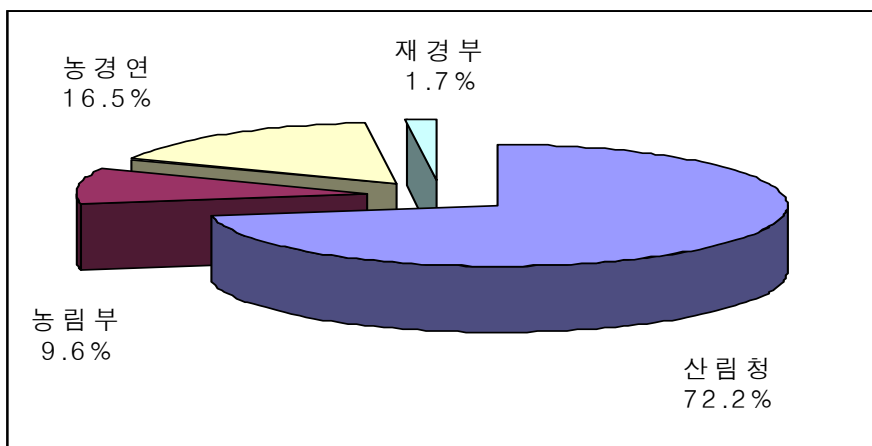
-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유통정보 제공 등 유통분야가 1순위(31.3%), 수출활성화가 2순위(30.4%), 가공분야 3순위(20%),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조성분야가 4순위(8.3%)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도의 조사에서는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조성이 1순위, 유통정보 제공 등 유통분야가 2순위, 밤 가공분야 3순위, 수출활성화가 4순위로 응답함으로서 먼저 생산기반조성이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금년도에는 2년 연속 수출의 부진, 내수 부진 등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생산기반보다는 유통·가공 등 소비분야와 수출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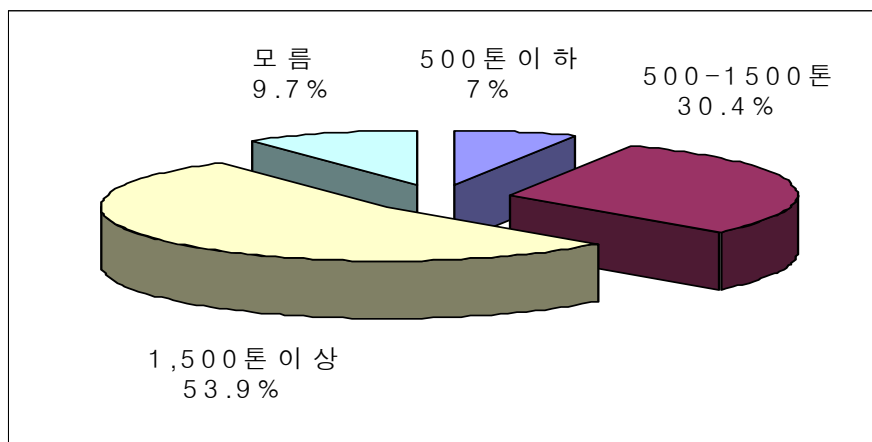
- 밤 소비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등 가공 산업의 육성이 66.1%,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29.6%, 기타가 4.3%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밤을 소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밤 소비확대를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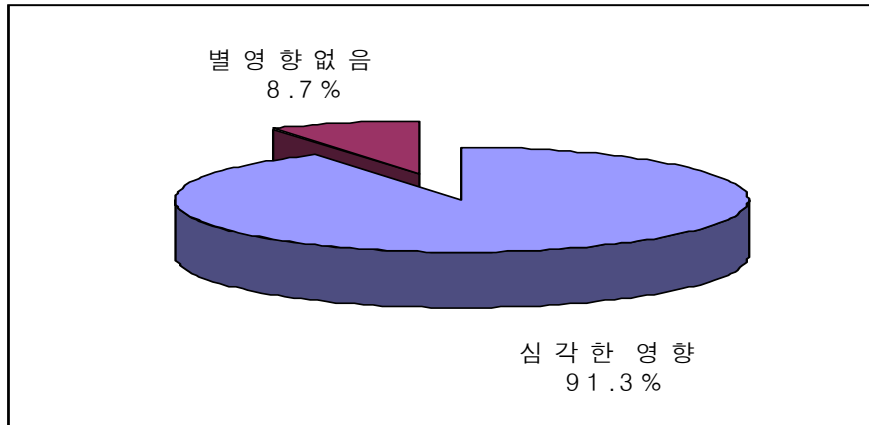
- 현재 농경연에서 행하는 임업관측사업(밤)에 대한 재정지원부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산림청이 72.2%, 농림부가 9.6%, 농경연 16.5%, 재경부 3.9% 등으로 조사돼 밤 재배와 관련된 재정지원은 산림청이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의 경우 산림청이 63.1%, 농림부 5.8%, 농경연이 27.2%, 재경부 3.9% 등으로 조사돼 금년도에는 임업관측사업(밤)에 대한 재정지원부서로서 산림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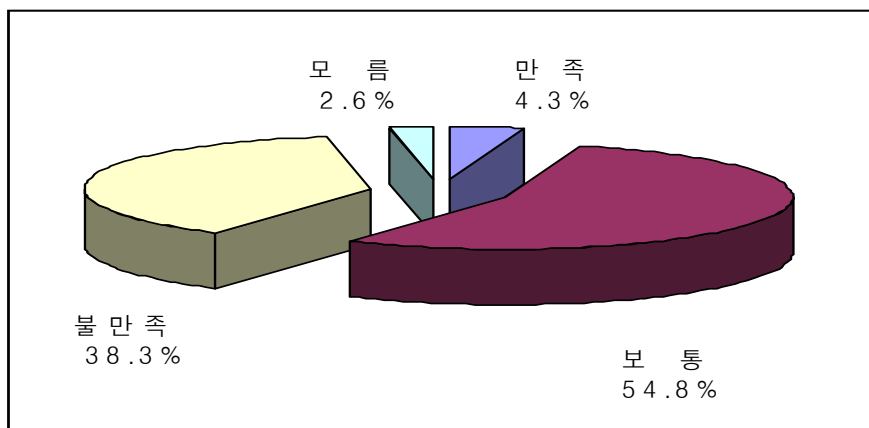
- 현재 냉동 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 지하는 수입물량의 규모에 대해서는 1,500톤 이상이 53.9%, 500-1,500톤 30.4%, 500톤 이하 7%, 모름 9.7% 로서 중국산 냉동 밤의 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국산 냉동 밤의 수입이 국내 밤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91.3%가 중국산 냉동 밤이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생산농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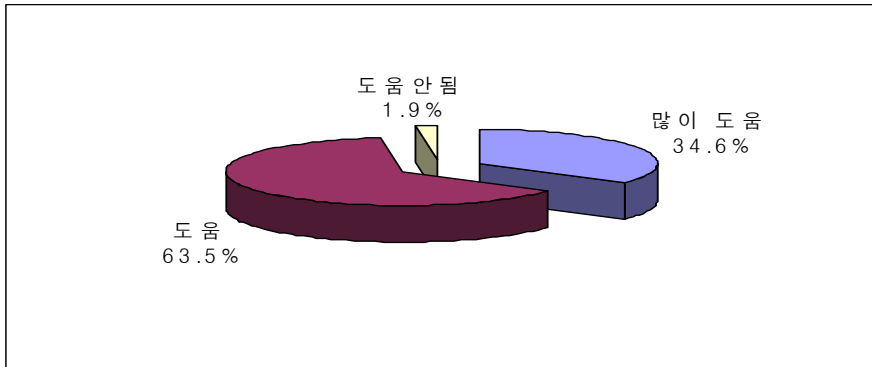


- 현재 밤 생산농가의 입장에서 밤 재배에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4.8%가 보통, 38.3%가 불만족, 4.3%가 만족, 2.6%가 모름으로 응답함으로써 현재의 밤 재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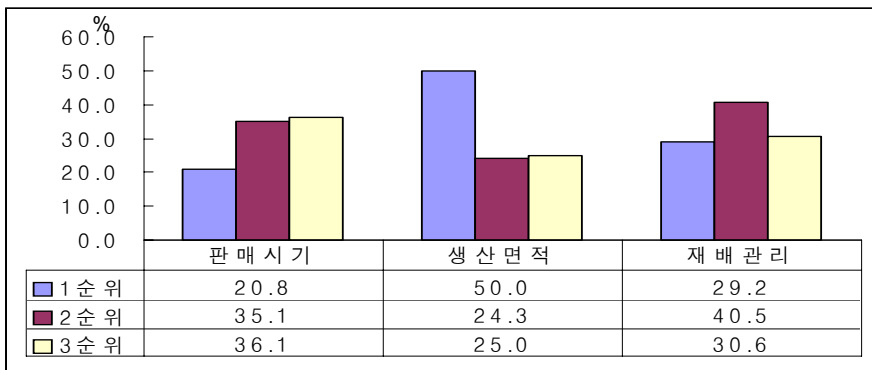


#### 4.2. 표고버섯 재배자 의식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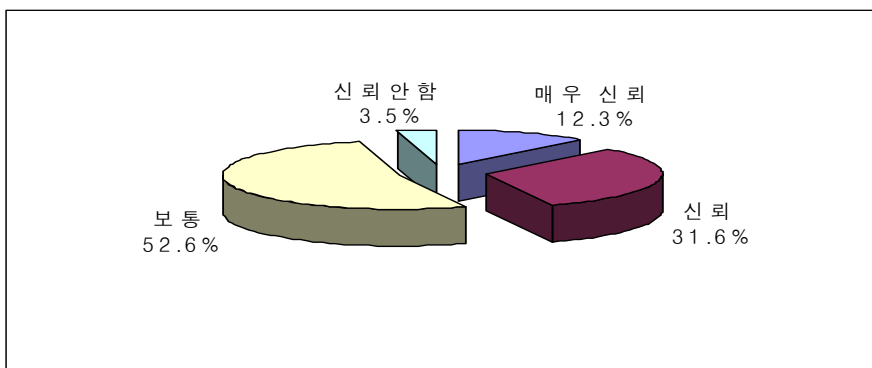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98.1%가 임업관측월보가 표고재배의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34.6%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관측정보의 제공이 표고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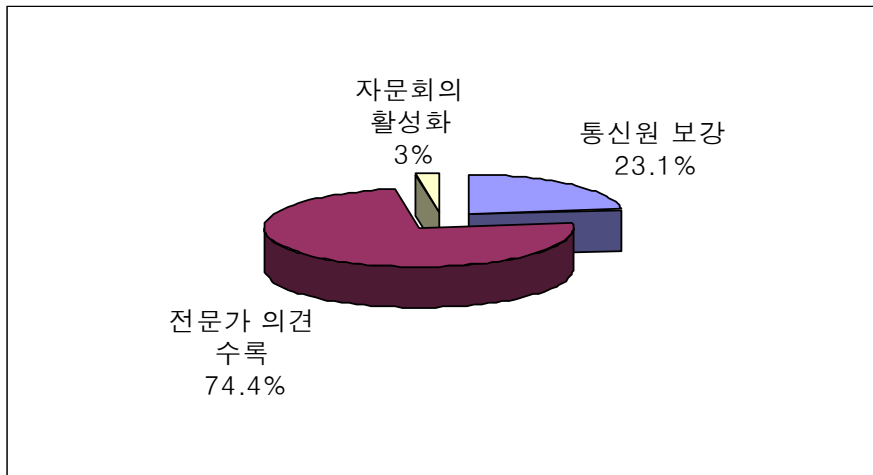
- 관측정보가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생산면적조정, 재배관리, 판매시기결정의 순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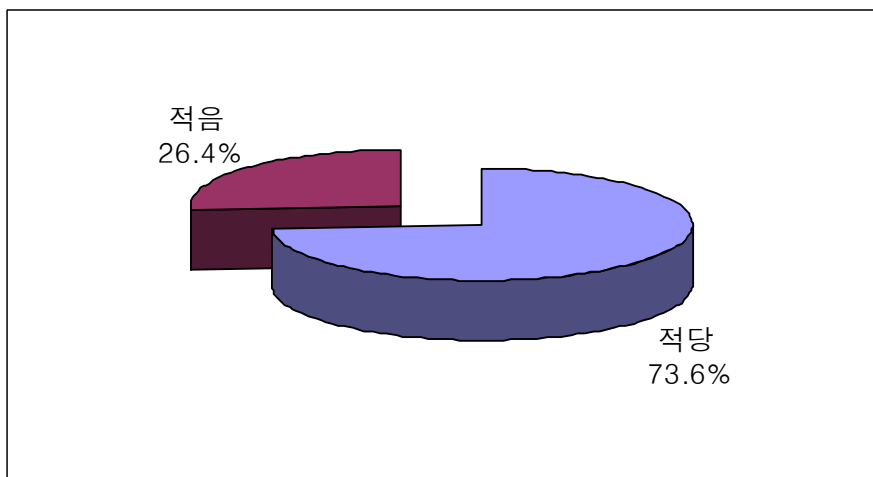
- 제공되는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 전체 응답자의 43.9%는 신뢰하고 있으며, 52.6%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금년의 경우 중금오류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공급물량과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재배자로부터 낮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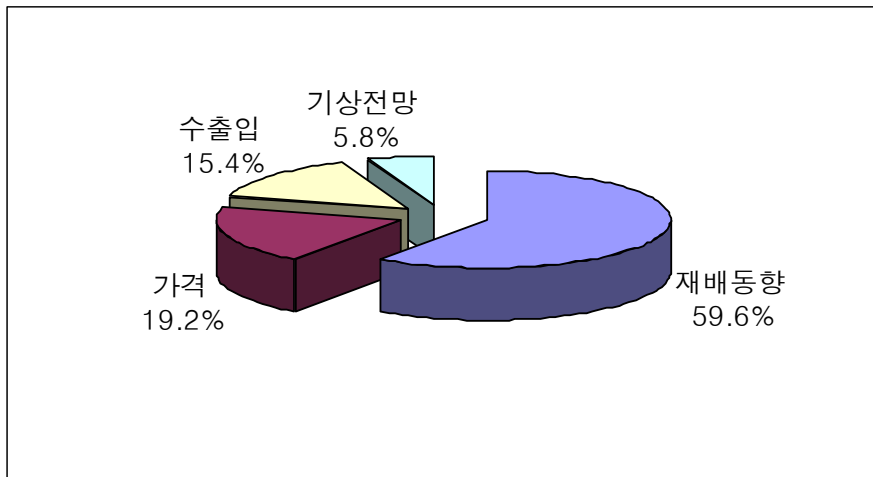
-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견 수록(74.4%)과 통신원 보강(23.1%)으로 지적됨. 그러나 관측월보의 특성상 전문가의 의견을 월보에 수록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월보 발행 이전에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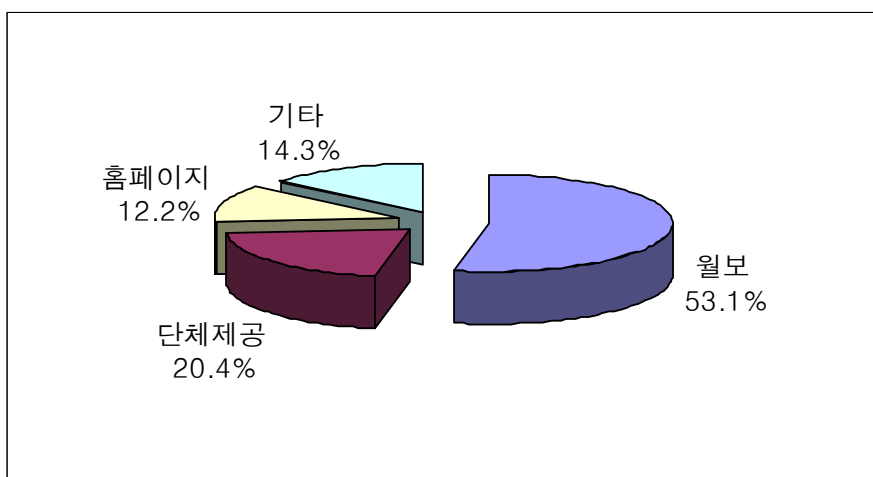
- 현행 표고버섯 관측월보는 12월, 1월, 2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매월 발행되고 있는데 현행 관측월보 발간회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3.6%가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6.4%는 적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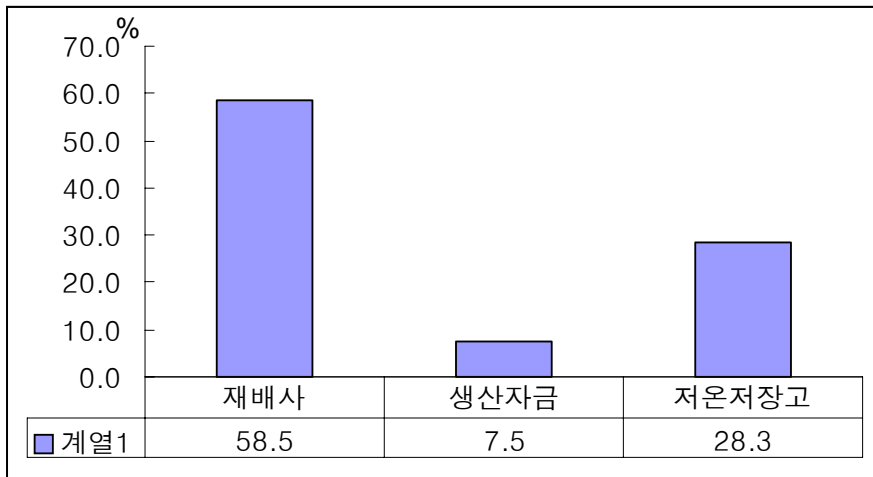
- 표고버섯 관측월보는 크게 재배동향과 전망, 가격동향과 전망, 수출입 동향과 전망, 기상동향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표고버섯 재배자들은 재배동향(59.6%), 가격동향(19.2%), 수출입동향(15.4%), 기상전망(5.8%)의 순으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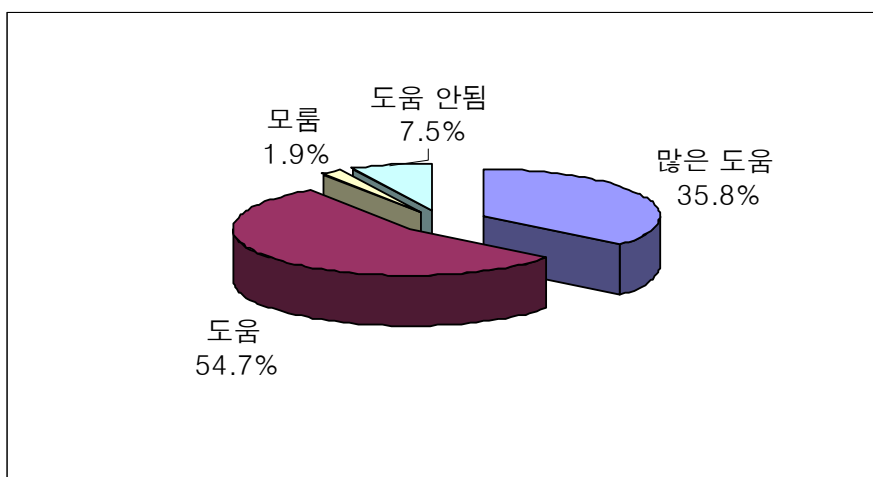
- 이러한 임업관측정보를 응답자의 53.1%는 매월 우편으로 배부되는 월보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20.4%는 지자체나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월보를 통해 얻고 있었음. 그리고 응답자의 12.2% 정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산림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고관련 정부지원의 규모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응답자의 62.3%가 표고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재배사 건립과정에서 응답자의 58.5%, 표고자목의 구입단계에서 7.5%, 저온저장고 시설에서 28.3%가 각각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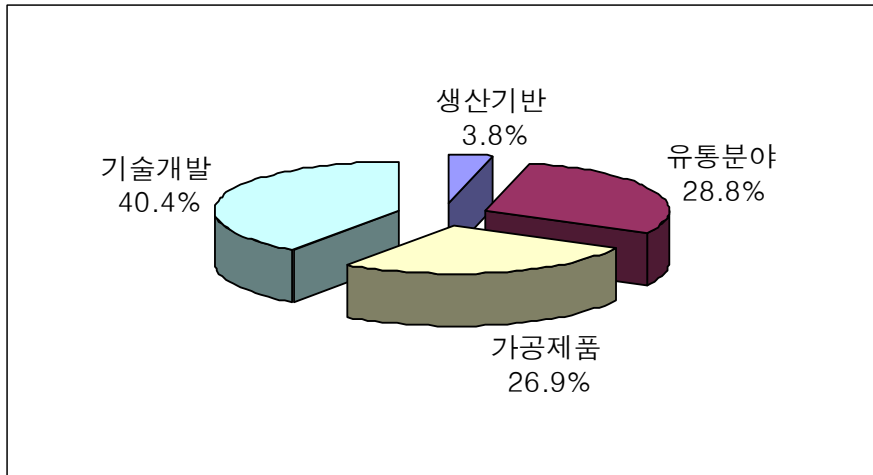


- 정부의 표고재배 관련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35.8%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는 현행 표고재배에 대한 정부지원이 재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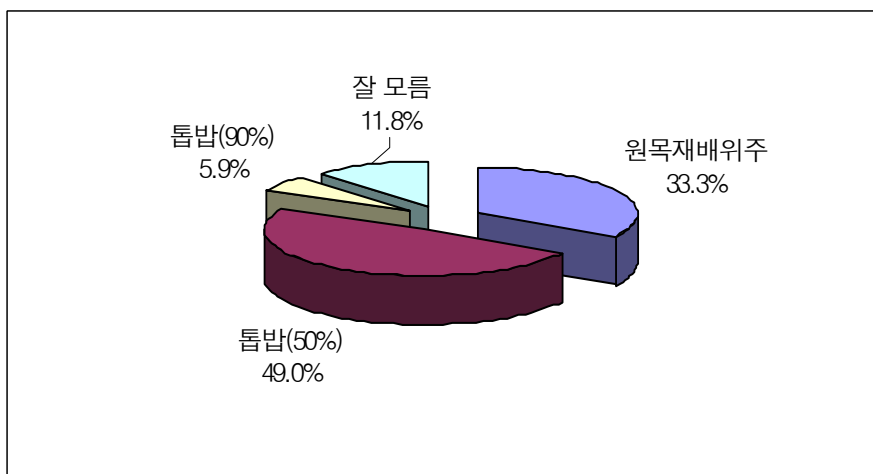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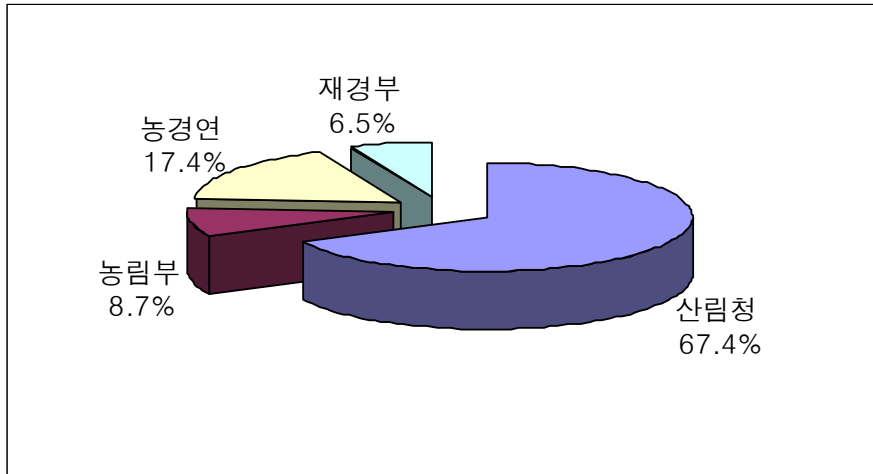
- 표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방향으로서 재배기술개발(40.4%), 유통분야지원(28.8%), 가공제품 개발(26.9%)로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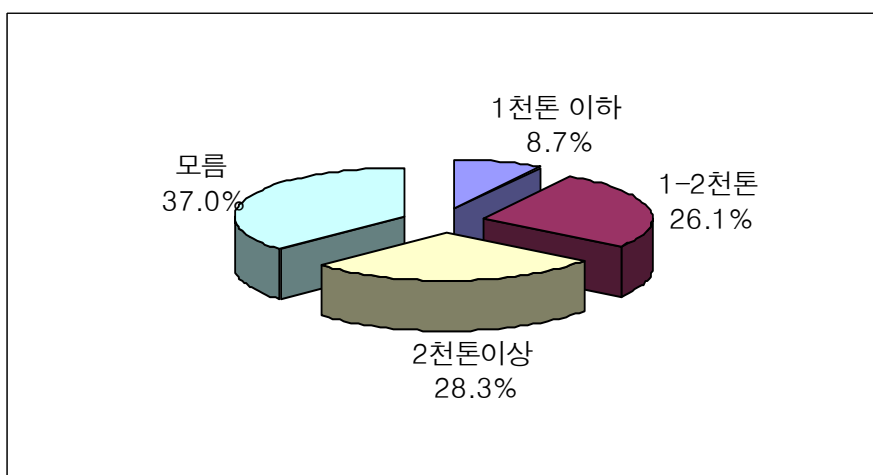
- 최근 톱밥재배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면서 톱밥재배로의 전환을 많은 재배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 바람직한 톱밥재배의 비율에 대하여 응답자의 33.3%는 현행수준을 희망하였지만, 톱밥재배를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9.0%, 톱밥재배를 9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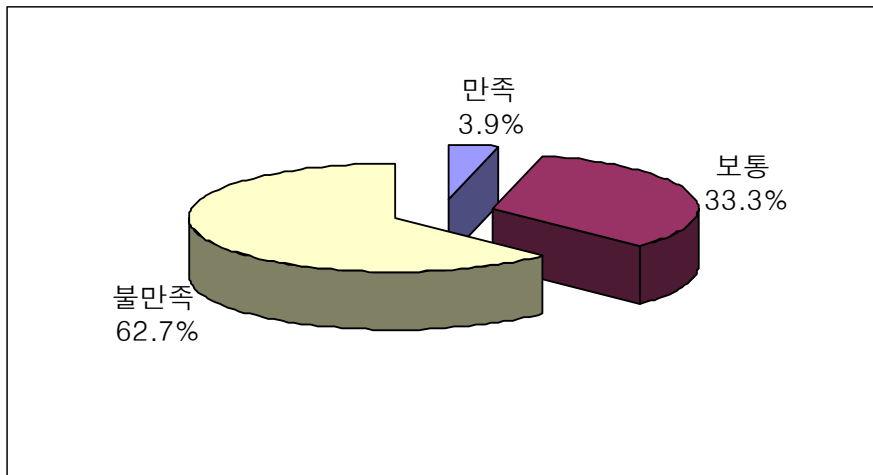
- 표고 관측사업의 지원기관인 산림청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67.4%로 나타나 대부분이 제대로 알고 있었으나 일부는 농경연(17.4%) 또는 농림부(8.7%), 재경부(6.5%)로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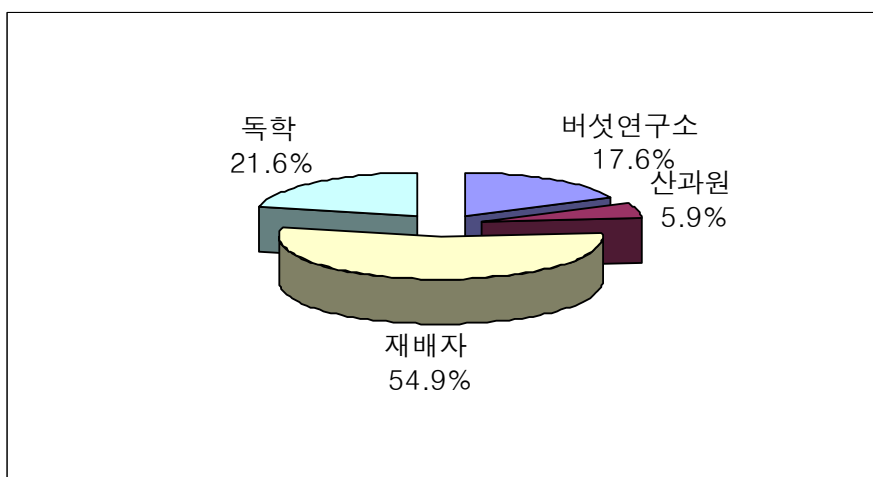
- 국내에 수입되는 건표고의 수입량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7.0%로서 상대적으로 건표고 수입량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음. 그리고 실제 수입량이 2004년의 경우 1,254톤으로 1천 톤에서 2천 톤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는 26.1%에 불과하였음. 특히,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28.3%나 달하여 정보가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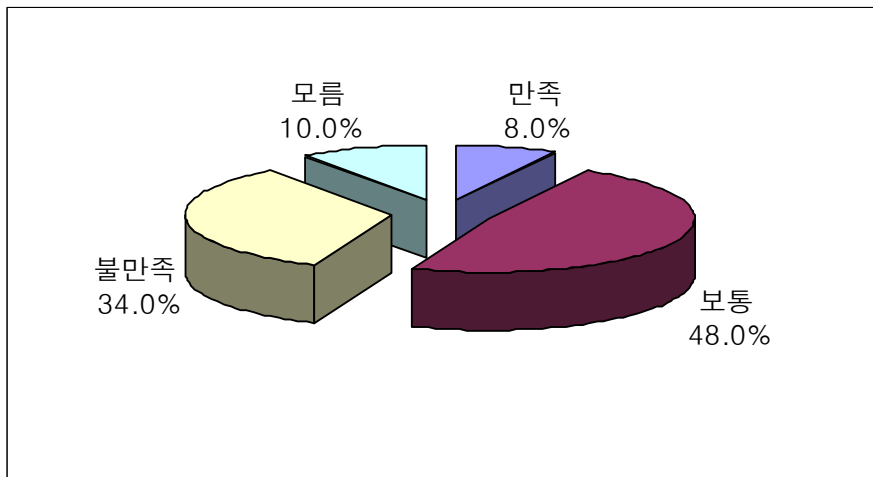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균에 대한 만족에서 응답자의 62.7%는 불만족하고 있었고, 만족하는 경우는 불과 3.9%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금년에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종균오류공급에 따른 피해로 재배자들이 종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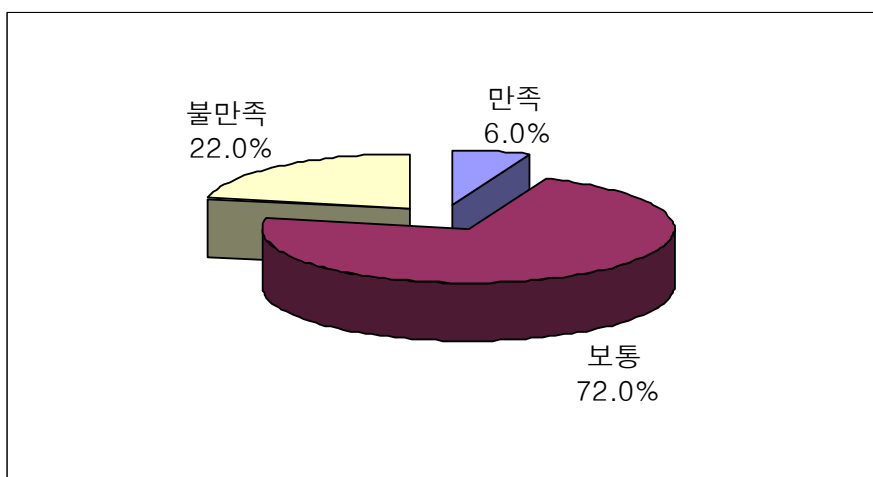
- 표고재배자들이 재배의 초기에 관련 기술을 주로 표고재배자(54.9%)에게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버섯연구소(17.6%), 산림과학원(5.9%)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음. 특히 독자적으로 기술을 터득하는 경우도 2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현행 산림과학원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버섯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고재배기술지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34.0%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8.0%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기술지도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순회교육(시·군 단위), 직접적인 방문교육 실시, 자체적인 실험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교육 실시, 지역적으로 연중 교육시스템 구축, 현실적인 기술지도



- 한편, 표고재배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6.0%만이 만족을, 22.0%는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현재 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4.3. 대정부 건의 사항

### 4.3.1. 밤

- 재배 및 생산
  - 모델림을 조성하여 재배표준화 및 재배방향 제시
  - 작업로 개설 및 방제장비 지원 확대
  - 전업농위주의 선별 지원 및 육성
  - 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 및 보급
  - 묘목검사를 철저히 하여 질 높은 품종의 묘목 공급
  -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밤나무 전문작업단 육성 및 지원 필요
  - 재배기술의 순회 교육 강화와 밤 전문가 컨설팅제 운용의 활성화
  
- 유통, 소비, 수출
  - 밤의 기능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및 홍보
  -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연구
  -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확대
  -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필요

### 4.3.2. 표고버섯

- 원목재배에 관심과 지원 집중
- 우량종균 및 가공식품의 개방 강화
- 전문연구팀과 기술지도 전문기관의 육성
- 수출장려 및 가격 안정화
- 벌채허가 간소화
- 수입대책수립 및 원산지 표시 강화
- 시설 및 장비 지원 확대
-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

## 제 3 장

# 2006년도 임산물관측사업 추진 계획

### 1. 기존 관측 대상 품목 및 내용

#### □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품목: 밤, 표고버섯
- 금액: 2억원(품목당 1억원)

#### □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저장,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산지 및 소비지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 기존 품목 세부 추진계획

#### 2.1. 추진 목표

- 임산물관측사업의 내실화
- 광범위한 분산체계구축

## 2.2.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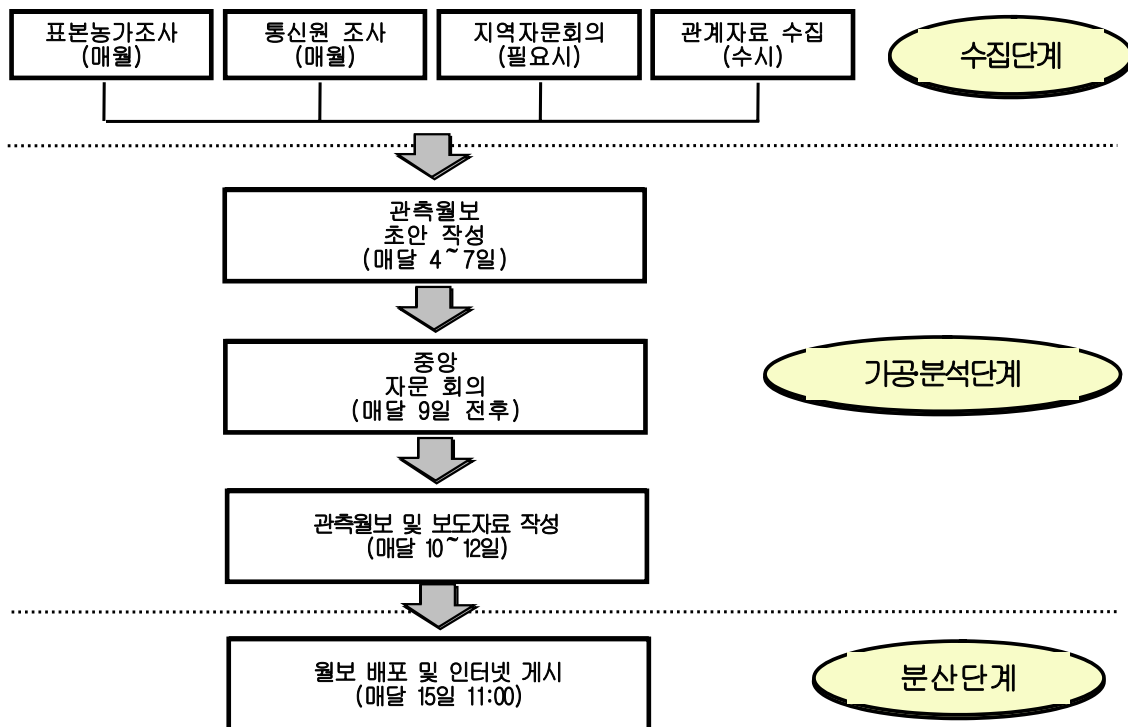
### □ 밤

- 준비: 2005년 1~2월
- 월보발간: 2005년 3월부터
- 임산물관측 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월보 : 격월(3,5,7,9,11월)15일날 발행하되, 밤의 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간이 보)를 발간
  - 발행부수 : 3,000부

### □ 표고버섯

- 준비: 2005년 1~2월
- 월보발간: 2005년 3월부터
- 임산물관측 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월보 : 매월(12, 1, 2월 제외)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2,500부

## 2.3. 임산물관측사업 추진 체계



## 2.4. 표본농가 및 통신원 정비

### 밤

- 준비: 2005년 1~2월
- 표본농가 및 통신원 수: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통신원 20~25명을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현지사정 파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고버섯

- 준비: 2005년 1~2월
- 표본농가 및 통신원 수: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통신원은 30명 내외로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현지사정 파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3. 신규 품목 추진계획

### 대상품목: 대추

### 예산: 5천만원

### 추진 일정:

- 준비: 2005년 1~2월
- 분기 보 발간: 2005년 3월부터
- 임산물관측 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분기 보 : (12, 1, 2월 제외) 6, 9,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2,0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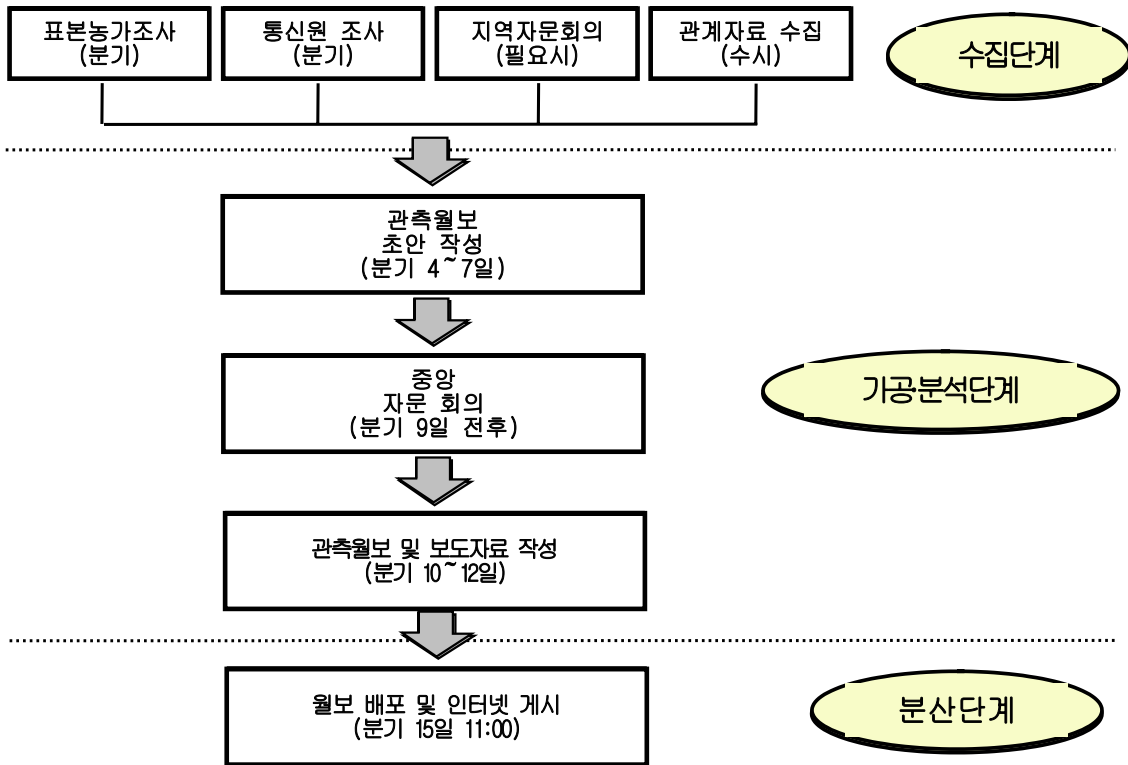
###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현지실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선정·운영
  - 표본농가 150호, 통신원 및 지역자문위원 12~15명, 중앙자문위원 11명



- 지역자문위원회는 관측보 발행 전달 20일경을 전후로 하여 현지에서 개최하고, 중앙자문위원회는 관측보 발행 달 9일을 전후로 개최·운영
- 산지동향 파악, 정보교환, 관측보 검증 및 자문

□ 추진 체계



4.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예산: 5천만원

□ 신속한 해외 동향 자료 수집 및 제공(3천만원)

- 해외동향 특히 일본, 중국의 시장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현지 통신원체제를 구축
- 밤 및 표고버섯: 일본동향(1,500만원), 중국동향(1,500만원)

## □ 관측사업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2천만원)

- 산지의 지역자문위원, 통신원, 표본 농가 및 중앙자문위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관측 보 발행 부수 및 관측사업결과 신문, TV, 라디오 등에 홍보 확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수정, 보완 등 관리체계 구축

## 5. 신규품목(대추)의 동향

- 확대 대상 품목인 대추는 임산물 중 수실류에 속하며, 밤을 제외하고는 연간 생산량과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서 농가의 고소득 단기 임산물임
  - 최근에는 청도 등지에서 일부 논이나 폐원의 대체 품목으로서 식재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등 대추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 대추는 최근 5년간(2000~2004) 연평균 생산량 8,463톤, 생산액 677억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임
  - 경산, 보은, 청도, 대구동구, 밀양, 군위, 청송, 홍천, 의성 등이 상위 20위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5천여ha로 추산
  - 대추의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5년간)
대 추	생산량(톤)	9,195	9,273	8,537	6,645	8,667	8,463
	생산액(억원)	837	793	730	513	513	677

주) 2002년과 2003년은 태풍 루사와 매미가 발생한 해로서 임산물 모든 품목들의 피해가 컸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황 판단 없이 식재하고 있어 향후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과거에는 집안의 뜰이나 밭 주변에 몇 그루씩 심는 정도에 불과하던 대추는 근래에는 약리성분과 식품으로의 수요증가에 따라 규모를 갖춘 과원으로 조성됨은 물론 근대적 경영형태로까지 크게 변모해가고 있음
  - 일부 시·군에서는 대추를 지역 특산품화하고 있으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기술을 보급하여 재배농가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경산시의 경우 재배농가수만 2,379호, 재배면적 834ha, 생산량 1,164톤
- 그럼에도 생산자가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분산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시장동향이나 가격 및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실정임.
  - 현재대로 방치된다면 과잉 또는 과소생산을 초래하게 되므로 대추와 감을 생산하는 생산농가의 임산소득은 더욱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음
- 대추는 건조와 저온저장을 통해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급전망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타 다른 과수에 비해 관측정보의 효용성이 높으므로 관측의 필요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이들 품목들에 대한 관측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생산계획의 수립과 출하조절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수급안정을 꾀하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임산부문 동향과 전망<sup>1</sup>

## 1. 밤

### 1.1. 교역여건 변화와 전망

#### 1.1.1. 국제생산 및 교역동향

- 밤의 세계 총생산량은 2000년에 98만 3,000톤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95만 4,000톤에 달했으나 2003년 중국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104만 2,000톤을 기록함으로써 1999년 대비 15.5%, 2002년 대비 9.2%가 증가하였다.
- 주요 생산국은 중국, 한국, 이탈리아, 터키 등으로 세계 밤 생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최대 생산국으로 세계 밤 생산의 약 68.6%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생산량이 2001년 9만톤에서 2002년 7만 2,000톤, 2003년 6만 여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였다.
- 주요 소비국은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이탈리아와 터키에서 생산된 밤은 유럽 지역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sup>1</sup> 농업전망 2005에서 발표된 내용을 편집하였음

## 1.1.2. 중국의 동향

- 2003년도 중국의 밤 생산량은 71만 5,000톤으로 주산지는 산둥성을 비롯해 하남성, 호북성 등 전국 22개 성·시·구이며, 재배면적은 약 133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은 전체 생산량의 5%인 약 3만 3,000톤 정도를 수출한다. 주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며,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도 수출하는데 수출 형태는 대부분 군밤용 생밤이다.
- 정부주도로 밤나무 품종개량 및 재배관리의 강화를 꾀하여 기존의 군밤용 중심의 밤 생산에서 깎밤용 밤 생산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996년부터 한국산 밤나무가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요령성 단동시, 산둥성 일조시 등지에 약 1만 5,000ha의 한국산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연간 5,000톤 정도의 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밤은 주로 깎밤의 형태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어 한국산 깎밤과의 경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밤을 생산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밤 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생밤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된 한국산 밤은 깎 밤으로 가공된 후 일본으로 수출되거나 일부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 중국에서의 밤 소비는 가을과 겨울에 간식용으로 또는 고급식당에서 볶음요리 재료로 이용되며, 밤 통조림을 비롯해서 밤 주스, 밤 차, 밤 죽, 밤 잼 등 다양한 가공제품용 재료로 소비된다.

표 4-1. 세계 밤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99/'03	'02/'03
세계	902	983	970	954	1,042	15.5	9.2
중국	534	598	615	599	715	33.9	19.4
한국	95	92	90	72	60	-36.8	-16.7
이탈리아	52	70	50	50	50	-3.9	0
터키	60	60	60	50	48	-20.0	-4.0
기타	160	162	155	183	169	5.6	-7.6

주: 한국의 밤 생산량은 산림청 통계자료로 수정된 값임.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apps.fao.org).

표 4-2. 중국의 밤 수급 동향

단위: 톤

	공 급			수 요		
	합계	생산	수입	합계	소비	수출
1999	535,788	534,631	1,157	535,788	569,517	33,729
2000	600,434	598,185	2,249	600,434	565,020	35,414
2001	618,044	615,000	3,044	618,044	586,425	31,619
2002	608,966	599,077	9,889	608,966	577,349	31,617
2003	725,118	715,000	10,118	725,118	690,620	34,498

주: 수출입량은 중국 밤(Banli chestnut:08024010)과 기타 밤(08024090)을 포함한 것임.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apps.foa.org). [www.kita.net](http://www.kita.net)

### 1.1.3. 일본의 동향

- 일본의 밤 생산량은 2003년에 2만 5,100톤으로 1999년 대비 16.3%, 2002년 대비 16.6%가 감소하였다. 주 생산지는 이바라키현, 구마모토현, 에이메현 등이며, 전체생산량의 약 41%를 차지하였다.
- 일본의 밤 수입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도 총수입량은 2만 8,000톤으로 1999년 대비 32%, 2002년 대비 1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은 한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량의 대부분은 생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산 간밤이 그동안 ‘일시보존처리 밤’으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생밤으로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일본의 밤 수급 동향

단위: 톤,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99/'03	'02/'03
국내 생산량		30,000	26,700	29,000	30,100	25,100	-16.3	-16.6
수입량	생 밤	34,726	37,384	31,695	29,073	25,233	-27.3	-13.2
	일시보존처리 밤	5,706	1,190	1,423	1,543	1,399	-75.5	-9.3
	밤 통 조 립	824	1,496	1,318	1,176	1,450	76.0	23.3
수입 계		41,310	40,070	34,436	31,792	28,082	-32.0	-11.7
총 수급 량		71,310	66,770	63,436	61,892	53,182	-25.0	-14.1

주: 일시보존처리 밤은 아황산 가스 또는 염수, 기타 보존용 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그 상태로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월표』, 2003, [www.rinya.maff.go.jp](http://www.rinya.maff.go.jp)

- 일본내 밤 소비는 10월 중하순의 십오야 명절을 비롯해 연말연시 동안 95%가 소비되며, 일본산은 생식용으로, 수입산은 감로자 등 제과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수입산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한국산 깐밤은 고급 제과용 원료로, 중국산은 군밤용으로 각각 소비된다.
-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과 중국산 밤의 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생밤의 경우 2003년도 수입평균가격은 kg당 474엔, 중국산은 338엔인데 비하여 한국산은 이들 가격보다 2.5~3.5배가 높은 1,197엔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시보존처리 밤의 경우도 한국산은 일본 수입평균가격과 중국산에 비해 1.3~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밤과 일시보존처리 밤 모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뒤지지만 질적 측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4. 교역 전망

- 최근 중국은 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서 단동지역을 중심으로 군밤용 밤 생산에서 깐밤용 밤 생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산 생밤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금후 친환경재배 등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로 수출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4-4. 일본에서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입가격 추이

단위: 엔/kg,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99/'03	'02/'03
생밤	수입평균	357	416	410	392	474	32.8	20.9
	한국산	668	736	679	804	1,197	79.2	48.9
	중국산	276	279	272	257	338	22.5	31.5
일시보존처리 밤	수입평균	670	651	639	761	1,045	56.0	37.3
	한국산	695	767	747	904	1,409	102.7	55.9
	중국산	304	335	341	395	573	88.5	45.1

자료: 일본 대장성 무역통계(2000-04). www.kita.net

## 1.2. 국내 생산 및 소비

- 지난 30년 동안 밤의 국내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어 1997년에 약 12만 9,000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6만 17톤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는 태풍 등의 자연 피해가 없어 약 8만 5,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1997년 이후 전체적인 밤 생산 추이는 감소추세이다.
- 지역적으로는 경남 산청, 하동, 진주, 합천, 전남 광양, 구례 등 국내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남부권 주산단지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림된 이후 신규조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나무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한 노동력부족에 따른 관리부실,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 반면 충남 공주, 부여, 충북 충주 등 중부권 주산단지는 신규조림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밤나무 재배면적은 1990년에 8만 583ha에서 1996년에 7만 9,155ha, 2003년에 5만 9,446ha로 감소하였고, ha당 수량은 1990년의 1.06톤에서 1996년에 1.37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1.01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1.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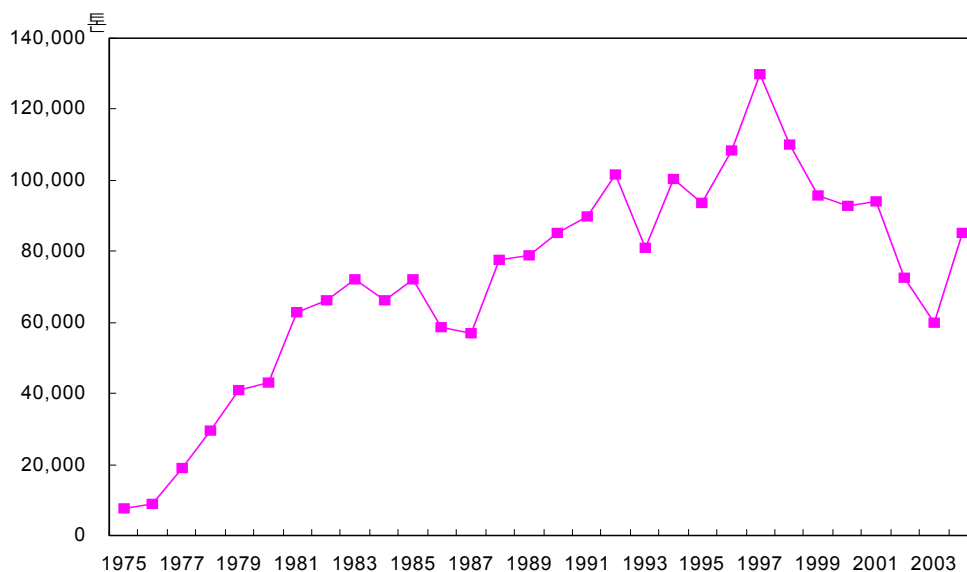




표 4-5. 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및 조립면적 추이

단위: ha, 톤/ha, 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조립면적
1990	80,583	1.06	85,043	928
1993	78,438	1.03	80,994	694
1996	79,155	1.37	108,346	539
1999	na	na	95,768	1,218
2002	na	na	72,405	2,679
2003	59,446	1.01	60,017	2,308
2004*	na	na	85,000	3,286
증감률(%)				
'99/03	-	-	-37.3	89.4
'02/03	-	-	-17.1	23.9

주: 2004년도 생산량은 농경연 추정치, 조립면적은 단목보식을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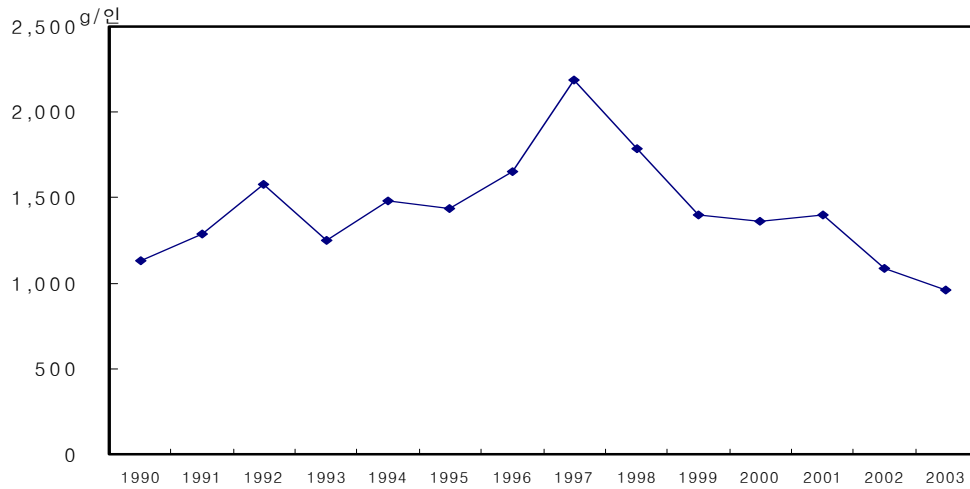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04, 농경연, 『밤나무재배실태와 정책방향연구』, 2003.

- 밤나무 조립면적은 1997년에 실시된 조립확대시책 이후 계속 늘어나 2003년에는 2,308ha, 2004년에는 3,286ha로 증가하였다. 밤나무 조립 형태는 광양, 산청, 진주 등 남부 주산단지에서는 일부 갱신조립이 있지만 기존 밤나무 재배지의 노령목, 병해충목, 고사목 등을 대체하는 보식의 형태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주, 부여 등 중부권에서는 신규 조립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 밤 소비추세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은 1990년 이전에는 1kg 미만이었다가 그 후로 증가하여 1997년에 최고 2.2kg이 되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 0.96k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밤의 소비형태를 보면 국산 밤은 주로 명절 제수용이나 군밤용, 제과용 원료, 이유식, 약재 등으로 사용되는 황률 형태로 소비되며, 깎밤, 밤 통조림, 생밤 등의 형태로 수출된다. 수입 생밤은 주로 군밤용으로 사용되며, 냉동 밤은 제과용, 요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1

<sup>1</sup> 밤의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수입량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양(생밤 기준)을 뺀 총 국내소비량을 총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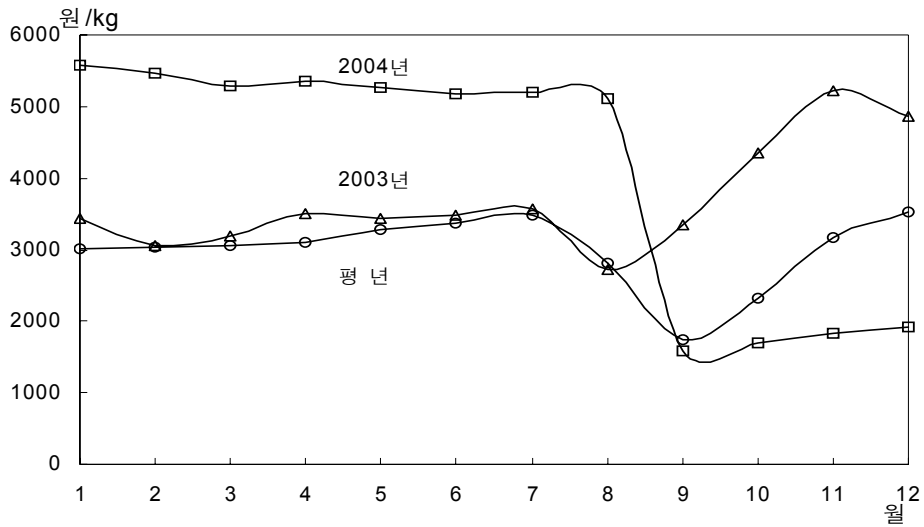
그림 4-2.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



### 1.3. 유통 및 가격

- 시중에 유통되는 밤의 물량은 약 6~7만 톤 정도이며, 농협이 67%, 수집상이 26%, 산림조합이 3%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이 수집한 물량 가운데 약 50%가 수출업체로, 나머지는 소비자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 연도별 월별 생산지 가격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출하기인 9월에 가장 낮고 4~8월에는 공급 부족과 장기저장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로 가장 높다. 이러한 가격변화는 밤의 출하기에 맞추어 9월~익년 2월 동안에 수출용, 연말연시 및 대보름용 등 명절용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그 후에는 냉동과 저장 밤 외에는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 2004년의 경우 밤 생산지 가격이 전반기에 대단히 높게 형성되었다가 9월부터 가격이 평년가격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피해로 밤의 생산량이 6만여 톤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출용 밤 가격이 8월 하순부터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2004년산 밤이 생산되는 8월 하순까지 계속 이어졌다.
- 2004년도에는 태풍 등 자연적 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밤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도에 높은 가격에 수입한 깡밤을 소모하지 못하고 재고량이 증가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깡밤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그림 4-3. 생산지 가격 월별 추이(상품)



#### 1.4. 수출입

- 2003년도 밤 수출량은 생밤 기준으로 1만 8,000여 톤, 수출액은 6,600만 달러로서 1999년 대비 39.5%, 2002년 대비 19.5%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 수출량은 1만 9,567 톤, 수출액은 4,167만 달러로서 2003년에 비해 수출량은 늘어났으나,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형태는 기존에 깻밤 위주로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근래에는 생밤위주로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생밤수출은 2002년 대비 47.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고가의 인건비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깻밤으로 가공하기 어려워 노동력이 많고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생밤을 수출하여 그곳에서 깻밤으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은 1999년 92%에서 2003년에는 65%, 2004년에는 42%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2004년 현재 51%에 달하였다.
- 밤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생밤 기준으로 약 4,400톤이 수입되어 1999년 대비 8.7배, 2002년 대비 1.2배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 보다 49.4% 증가한 6,580톤이 수입되었다.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으로 2003년 전체 수입의 94%를 차지하였다.

표 4-6. 밤의 제품별 수출 추이

단위: 톤,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99/'03	'02/'03
수출량	생 밤	2,245	2,285	4,651	5,889	8,702	13,771	287.8	47.8
	간 밤	12,283	11,845	11,357	6,941	4,185	2,310	-65.9	-39.7
	가공밤	1,163	1,292	1,055	1,554	417	515	-64.1	-73.2
	냉동밤	86	193	122	146	140	105	62.8	-4.1
	합 계 <sup>2)</sup>	30,667	30,035	30,968	23,073	18,564	19,567	-39.5	-19.5
수출액		85,262	88,467	78,432	62,856	66,063	41,669	-22.5	5.1
일본의 비중		92	91	87	77	65	42	-29.3	-15.6

1) 2004년 자료는 12월말 잠정 집계임.

2) 합계는 생밤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전환계수는 생밤 1.0, 간밤 2.2, 가공밤 1.1, 냉동밤 1.4임.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www.kita.net

표 4-7. 밤의 제품별 수입 추이

단위: 톤,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99/'03	'02/'03
수입량	생 밤	178	67	231	423	557	1,557	212.9	31.7
	간 밤	0	9	0	36	46	21	-	27.8
	가공밤	17	55	17	76	401	849	2,258.8	427.6
	냉동밤	184	1,096	966	980	2,102	2,888	1,042.4	114.5
	합 계 <sup>2)</sup>	454	1,682	1,613	1,958	4,404	6,580	870.0	124.9
수입액		516	1,719	1,541	2,146	3,380	7,504	555.0	57.5
중국산 비중		96	99	82	82	94	97	-2.1	14.6

1) 2004년 자료는 12월말 잠정 집계임.

2) 합계는 생밤 기준으로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2004. www.kita.net

- 수입은 주로 냉동 밤으로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수입물량의 약 67%를 차지하였으며, 1999년 대비 10.4배, 2002년 대비 1.1배 증가하였다. 냉동 밤의 수입이 이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3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제과용 및 요식용 원료로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냉동 밤을 제외한 생밤 및 간밤은 관세화 대상 품목으로 공매제도를 통해 수입권이 수입업자에게 할당되고 있다. 수입권 공매제도의 운영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담당

하고 있다. 수입물량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며, MMA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나 초과시에는 종량세 또는 종가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2004년에는 219.2% 또는 kg당 1,470원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05년도 밤 수입은 2004년과 동일한 물량과 관세로 운영된다.

표 4-8. 밤(생밤 및 간밤 포함)의 MMA 물량 및 실수입량

단위: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99/'03	'02/'03
MMA물량(A)	1,688	1,784	1,880	1,977	2,073	2,170	30.3	4.9
실수입량(B)	117	95	204	290	462	1,404	152.5	59.3
B/A(%)	6.9	5.3	10.9	14.7	22.3	64.7	83.3	46.7

주: MMA물량은 생밤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경영부, 2004.

- MMA 물량은 1999년에 1,688톤에서 2003년에 2,073톤, 2004년에 2,17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수입량은 1999년에 117톤으로 MMA 물량의 6.9%, 2003년에 462톤으로 22.3%, 2004년에 854톤으로 64.7%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수입량이 MMA 계획물량에 비해 낮은 것은 수입가격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수입산 생밤의 용도가 군밤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높은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생밤의 수입량은 1999년 대비 152.5%, 2002년 대비 59.3%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군밤시장에서 중국산 밤의 고정적인 점유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 1.5 수급 전망

-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다면 2005년도 국내생산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약 8만 7,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0-70년대에 다량으로 식재된 밤나무의 노령화와 폐원, 그리고 최근의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왔으나, 1997년 이후 신규조림면적이 확대되었고 밤나무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2008년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8만 6,000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14년에는 약 7만 9,000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수입은 2004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2005년도에는 약 5천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는 2008년에는 약 8천톤, 2014년에는 약 1만 8,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수입물량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생밤수입은 국내 소비용도를 고려하면 MMA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실수입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30%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냉동밤은 국내에서 제과용 원료로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9. 밤의 수급 전망(생밤환산 기준)

단위: 톤

	2003	2004 (추정)	전망		
			2005	2008	2014
공급	64,421	91,580	91,399	93,688	97,681
국내생산	60,017	85,000	86,885	86,111	79,636
수입	4,044	6,580	4,514	7,577	18,044
수요	64,421	91,580	91,399	93,688	97,681
국내소비	45,857	69,013	68,666	71,718	79,541
수출	18,564	19,567	22,733	21,970	18,140
1인당 소비량(g)	960	1,454	1,417	1,458	1,592

- 2005년도의 국내 소비는 2004년 수준인 약 6만 9,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는 제과용 원료로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2008년도에 약 7만 2,000톤, 2014년에 약 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는 2005년도에 1,417g, 2014년에는 1,592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도의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밤수출의 증가로 약 2만 3천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국내 생산량의 감소로, 2014년에 약 1만 8,000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2. 표고버섯

### 2.1. 교역여건 변화와 전망

#### 2.1.1. 국제 교역 동향

- 표고버섯은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며, 국제교역 역시 이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입이 활발한 주요 교역국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은 수출국이고,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수입국이다.

- 특히 중국은 표고버섯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과 홍콩이었으나 중국과의 국가수교이후 교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고버섯 교역은 주로 건표고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홍콩으로는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는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표고의 절반 이상은 수출하였다. 그러나 1991년 2,500만 달러(864톤)로 수출 절정기를 거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462만 달러(248톤) 까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수출시장인 홍콩의 재수출 감소와 건표고에서 생표고로 일본 소비형태의 전환,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때문이다.

### 2.1.2. 중국의 동향

- 중국 표고생산량은 생표고 기준으로 2000년에 약 12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수출량은 건표고 1만 4,079톤, 생표고 5만 5,112톤 정도이며, 그 중 약 9,144톤(65%)과 4만 765톤(74%)이 각각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표 4-10. 중국의 표고 수급 실태

단위: 톤, %

	총생산량	수출량					
		건표고			신선, 냉동버섯		
		수출량	일본수출	한국수출	수출량	일본수출	한국수출
수 량	1,200,000	14,079	9,144	1,080	55,112	40,765	59
비 율	-	100	65	7.7	100	74	0.1

자료: 曹炳 외(2003).

- 2001년 일본 정부가 잠정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의해 수출이 곤란해지고, 자국 내 시장가격 저하로 내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에서는 上海, 廣州 등 연안 지역

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식자재용 표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생표고를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연간 표고소비량은 2000년에 797g으로 일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1.2g의 소비량을 나타냈던 1978년에 비해 소비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2.1.3. 일본의 동향

- 일본의 건표고 생산량은 2003년도 4,108 톤으로서 1999년 대비 26.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자수와 원목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건표고 수출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건표고 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일본 소비량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중국산 수입표고가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3년 6만 5,363톤으로 1999년 대비 7.3%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2000년 까지 증가한 다음 감소추세에 있는데 2003년에는 2만 4,896톤으로 1999년 대비 20.6%가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 JAS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의 명기가 철저해진데다 중국산 수입야채 등의 잔류농약 문제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생표고 수입량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한편, 일본의 표고재배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원목과 비교해 다루기 쉽고,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균상재배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표고 생산량에서 균상재배 방식의 점유율은 1999년 48.8%에서 2002년 60.6%로 증가하였다.

표 4-11. 중국과 일본의 표고 소비량 비교

단위: 톤, g

	중 국		일 본	
	총 소비량	1인당 소비량	총 소비량	1인당 소비량
1978	1,170	1.2	173,080	1,503
2000	1,004,098	797	251,931	1,985

자료: 曹炳 외(2003).



표 4-12. 일본의 건표고 수급추이

단위: 톤,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99/'03	'02/'03
생 산 량	5,582	5,236	4,964	4,449	4,108	-26.4	-7.6
수 입 량	9,146	9,144	9,253	8,633	9,137	0.0	5.8
수 출 량	156	115	151	118	79	-49.3	-33.0
소 비 량	14,572	14,265	14,067	12,965	13,166	-9.6	1.5

자료: 日本 林野廳(2003).

표 4-13. 일본의 생표고 수급 추이

단위: 톤,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99/'03	'02/'03
생 산 량	70,511	67,224	66,128	64,442	65,363	-7.3	1.4
- 원목재배	36,068 (51.2)	32,567 (48.4)	28,542 (43.2)	25,400 (39.4)	-	-	-
- 균상재배	34,442 (48.8)	34,657 (51.6)	37,586 (56.8)	39,043 (60.6)	-	-	-
수 입 량	31,628	42,057	36,301	28,148	24,896	-20.6	-11.5
소 비 량	102,139	109,281	102,429	92,590	90,259	-11.6	-2.5

주: ( )안의 수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日本 林野廳(2003).

#### 2.1.4. 교역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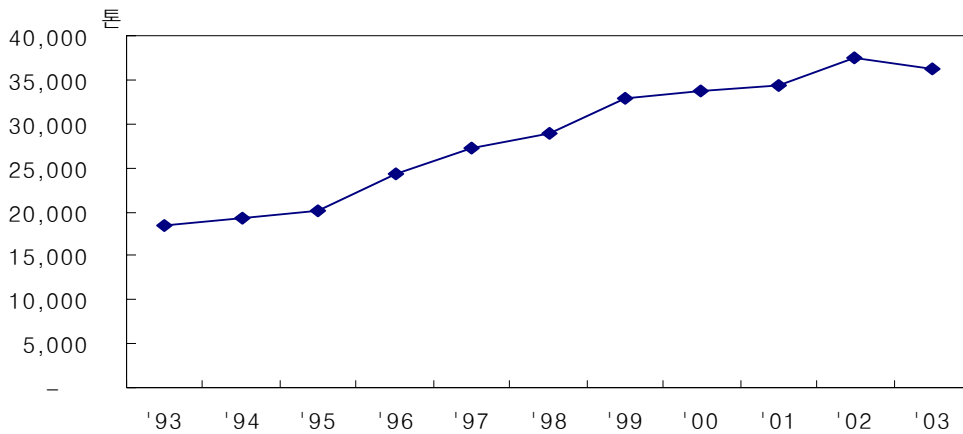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복건성은 표고버섯의 주 생산지로서 수출용 표고버섯의 생산기반 조성 및 저장, 가공 및 포장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표고버섯의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은 원산지표시강화와 같은 수입규제를 통해 중국산 생표고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균상재배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생표고 수입은 줄어들고, 건표고 소비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은 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주요국의 표고생산방식이 균상재배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목재배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 여건이 불리하며, 국내 소비증가로 수출보다 내수로 전환되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2. 국내 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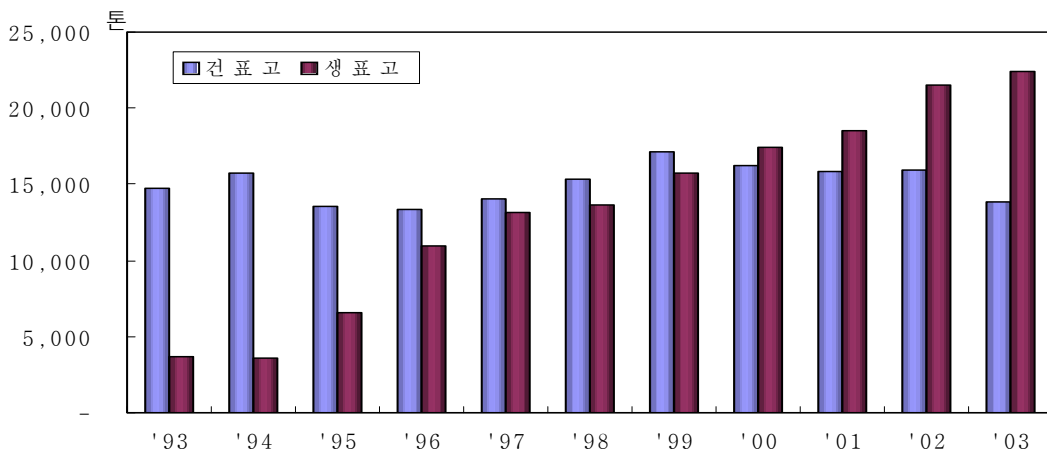
- 표고버섯의 국내 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생표고 기준으로 1993년 1만 8,428톤에서 2003년에는 3만 6,209톤으로 늘어나 1993년 대비 9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된 표고버섯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생산증가가 이루어졌지만, 2003년과 2004년에는 접종물량의 감소와 이상 기후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4년은 전년도에 비해 14%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 국내 표고버섯 생산추이



주: 생표고 기준으로 환산하였음(건표고: 0.14, 생표고 1.0).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4-5. 소비용도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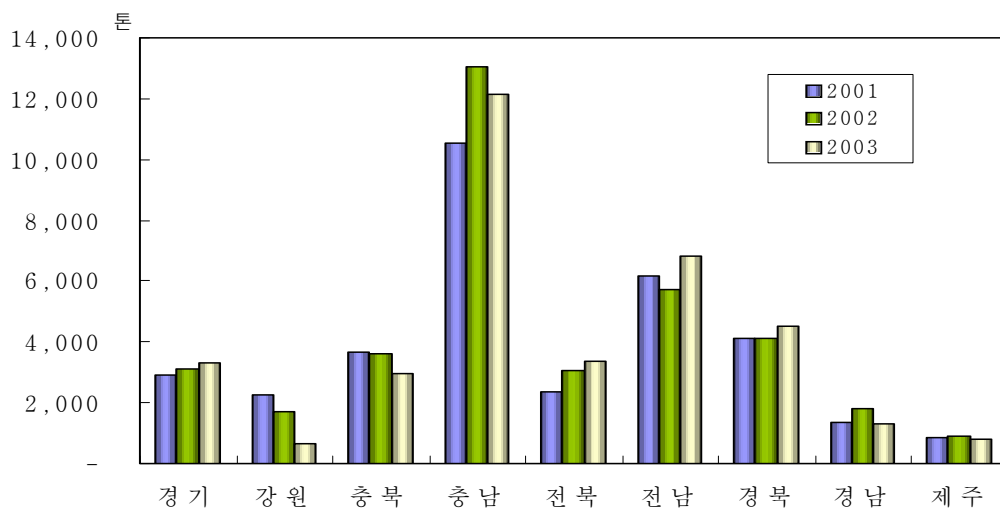


주: 생표고 기준으로 환산하였음(건표고: 0.14, 생표고: 1.0).

- 건표고의 생산량(생표고로 환산)은 1993년 1만 4,707톤에서 2003년에는 1만 3,835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0.26%씩 감소하였으나, 생표고 생산량은 1993년 3,721톤에서 2003년 2만 2,374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생표고 생산량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 선호의 고급화와 해외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수 중심의 생표고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표고버섯의 재배방법은 크게 원목재배와 톱밥재배로 구분되는데, 톱밥재배는 연중생산이 가능하여 원목재배 보다 생산성이 높지만 국내는 아직 생산기반이 미약하다. 한편, 원목재배는 다시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되는데 현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노지재배보다 시설재배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충남, 충북, 경북, 전남에서 전체의 70% 이상 생산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생표고 기준으로 2003년 생산량이 1만 2,143톤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며, 주요 생산지는 부여, 청양, 공주 등이다.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은 생표고 기준으로 1993년 402g에서 2003년 988g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소비증가의 원인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향상과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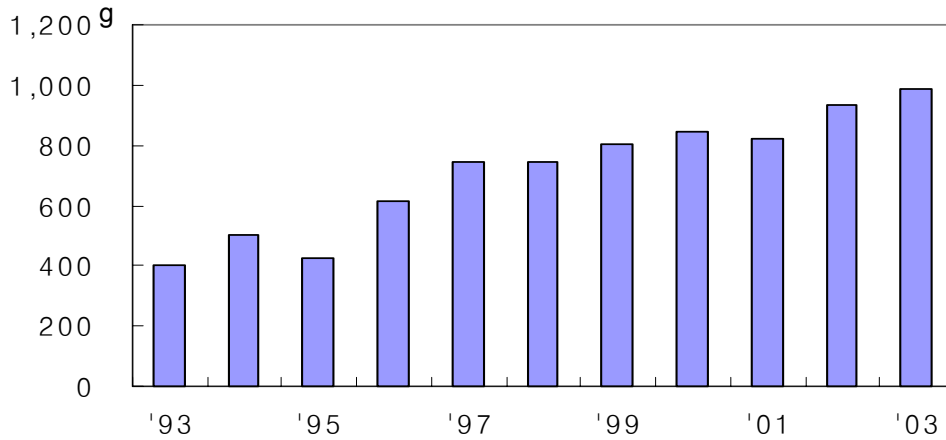
그림 4-6. 지역별 표고생산 (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천 톤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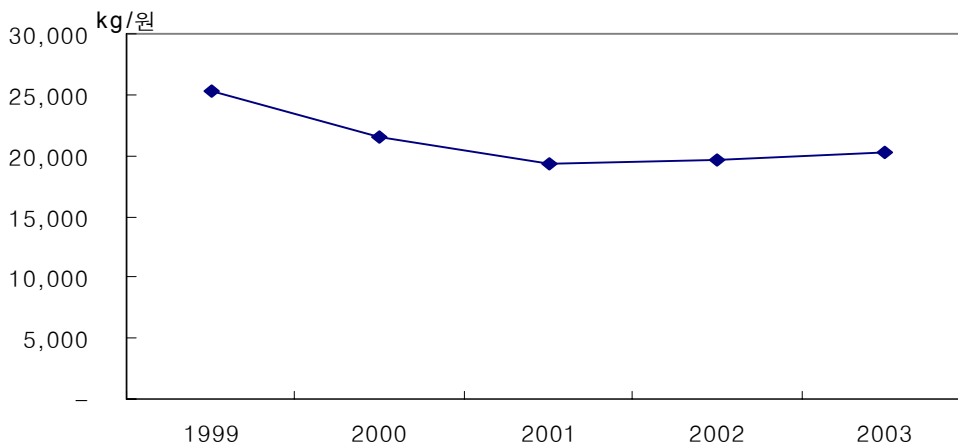
그림 4-7. 표고버섯 1인당 소비량 추이(생표고 환산 기준)



### 2.3. 유통 및 가격

- 건표고는 주산지인 장흥, 거제 등의 산지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서 봄, 가을에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거래된다. 생표고는 공주, 부여, 천안 등 중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출하되는데, 전체 물량의 40%가 가락시장으로, 나머지는 기타 지역 도매시장 등을 통해 출하되고 있다.
- 건표고의 가격 동향(건표고 향신 2등급)을 생산지 실질가격(200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9년에 2만 5,252원에서 2003년에는 2만 193원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건표고의 실질가격 추이



- 이러한 가격하락은 국내 표고 수요가 건표고에서 생표고로 전환되었고, 건표고의 수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국산 수입표고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생표고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제품의 등급별로는 고급품의 가격상승폭이 큰 반면에 저급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 생표고의 월별 가격동향을 보면, 일정 수준내에서 계절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겨울철에는 가격이 상승하였다가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생표고의 월별 가격추이(가락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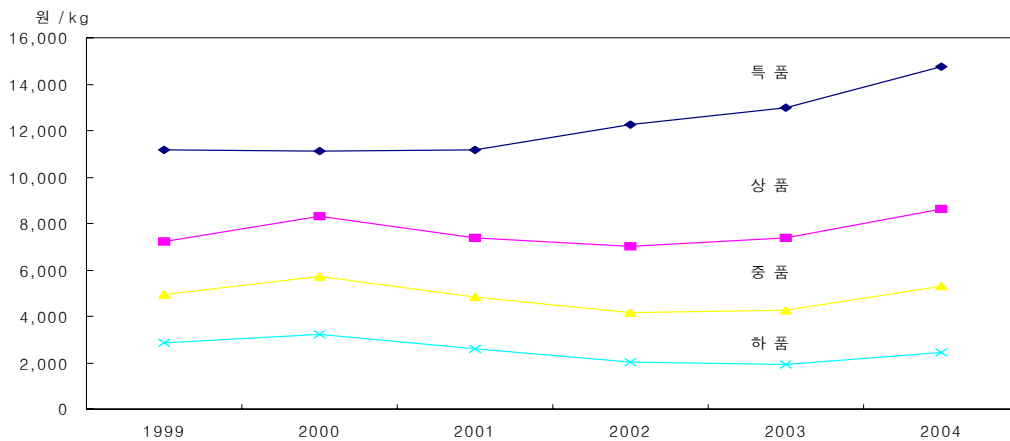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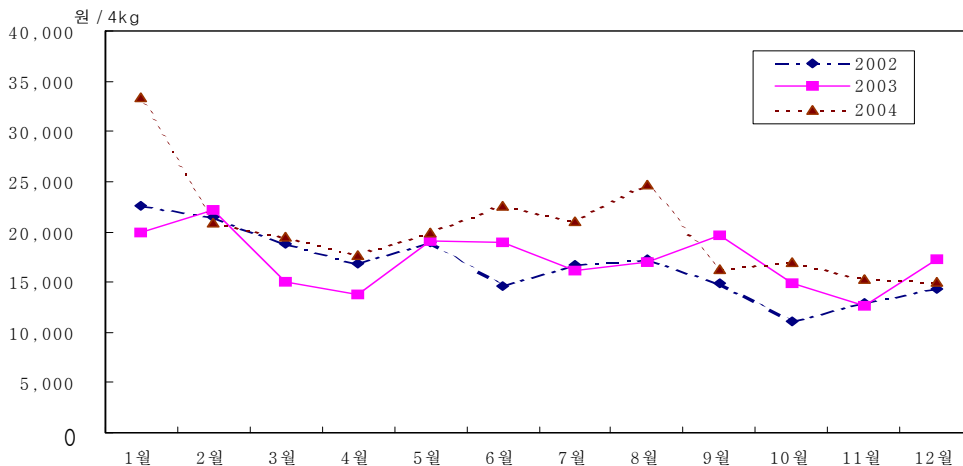


그림 4-10. 생표고의 월별 가격추이(2002-04년): 중품기준



## 2.4. 수출입

- 1980년대 말까지 건표고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었으나 1990년 이후 수출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감소의 원인은 높게 형성된 국내가격에 의하여 내수 위주로 변화한 시장구조와 값싼 중국산 표고의 일본시장 잠식에 있다.

표 4-14.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출 추이

단위: 톤,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sup>1)</sup>	증감률	
								'99/'03	'02/'03
수출량	건표고	392	226	191	255	362	248	-7.6	41.9
	생표고	19	0	68	36	12	0	-36.8	-66.6
	저장표고	6	2	2	-	-	-	-	-
	합 계 <sup>2)</sup>	401	228	202	260	364	248	-9.2	40.0
수출액		7,711	5,012	4,376	4,306	6,403	4,624	-17.0	48.7
일본비중(%)		49	50	37	53	63	(48)	-	18.9

1) 2004년 자료는 12월말 잠정 집계임.

2) 건표고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각 품목의 전환계수는 건표고 1.0, 생표고0.14, 저장표고 1.0임.

자료: 산림청(2003), 『임산물수출입통계』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

- 표고버섯의 수출량은 2003년에 건표고 기준으로 364톤으로, 1999년 대비 9.2% 감소, 2002년 대비 40.0%가 증가하였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에 약 640만 달러로서 1999년 대비 40.0% 감소하였으나 2002년 대비 48.7%가 증가하였다.
- 건표고는 2003년에 표고버섯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999년 대비 7.6% 감소, 2002년 대비 41.9% 증가하였다. 건표고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과 홍콩으로서, 2003년에 이들 국가에 255톤과 75톤을 각각 수출하였다.
- 표고버섯은 1977년 시장개방 이후 적은 양이 수입되었으나, 국내소비 증가와 더불어 1995년 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건표고와 저장표고의 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수입량은 건표고 기준으로 2003년에는 1,926톤에 달하여 1999년 대비 50.8%, 2002년 대비 49.8% 증가하였다.

표 4-15. 건표고의 국별 수출 물량 추이

단위: 톤,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sup>1)</sup>	증감률	
							'99/'03	'02/'03
홍콩	106	91	96	71	89	75	-16.0	25.3
일본	188	115	75	155	255	128	35.6	64.5
싱가폴	15	12	9	7	10	7	-33.3	42.8
미국	26	4	4	2	4	1	-84.6	50.0
기타	57	4	7	20	4	8	-92.9	-400.0
합계	392	226	191	255	362	219	-7.6	42.0

1) 2004년 자료는 11월말 현재 실적임.

자료: www.kita.net

표 4-16.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sup>1)</sup>	증감률	
								'99/'03	'02/'03
수입량	건표고	1,041	1,079	811	905	1,000	1,355	-3.9	10.5
	생표고	57	59	78	8	-	36	-	-
	저장표고	5	1	2	325	927	1,709	-	185.2
	합계 <sup>2)</sup>	1,054	1,088	824	1,234	1,926	3,069	872	56.1
수입액		2,543	2,739	2,013	2,559	3,834	5,759	50.8	49.8
중국비중(%)		93	92	99	98	99	99	-	-

1) 2004년 자료는 12월말 잠정 집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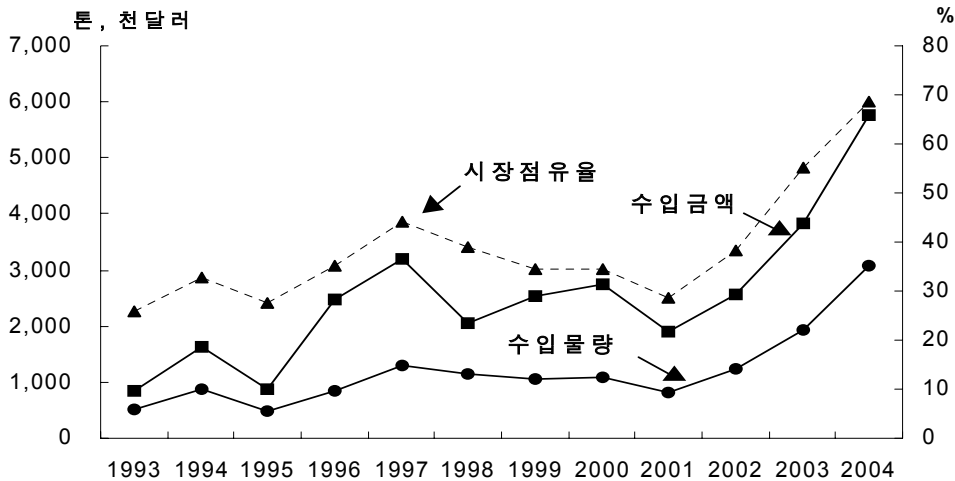
2) 건표고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각 품목의 전환계수는 건표고 1.0, 생표고0.14, 저장표고 1.0임.

자료: 산림청(2003), 『임산물수출입통계』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산 건표고의 수입동향을 보면, 1997년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가 IMF로 인하여 수입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 다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최근 10여 년간(1993-04)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금액은 1993년에 83만 달러에서 2003년에 383만 달러로 363% 증가하였고, 국내 건표고 시장에서의 중국산의 시장점유율도 1993년 26%에서 2003년에는 56%로 증가하였다.
- 값싼 중국산 표고의 다량수입으로 국내 생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생표고와 건표고에 기본관세율 30%를 적용하였던 것을 1992년부터 1994

년까지 조정관세 100%를 부과하여 생산자를 보호하였으나, UR 이후 조정관세율을 인하하여 2005년도에는 45% 또는 1,625원/kg로서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4-11. 중국산 건표고의 국내 수입물량, 수입금액, 시장점유율



## 2.5. 수급전망

- 2005년의 국내 표고버섯 생산은 생표고 기준으로 4만 1,000톤, 2008년에는 4만 7,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WTO/DDA 협상타결에 따라 세율인하와 그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국내 내수 증가와 시설재배 및 균상재배 확대 등 재배방법 개선에 힘입어 국내 생산량은 2014년에 약 5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표고버섯 소비는 국민소득 증가와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 증대에 따라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표고 소비량은 2005년의 1,093g 수준에서 2014년에는 1,293g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내 총 소비량은 2005년에는 약 5만 3,000톤, 2008년에는 약 6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표고버섯 수출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5년도 수출량은 2,683톤, 2008년도에는 2,074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표고버섯 수입량은 2005년도에 약 1만 4,000톤, 2008년도에는 약 1만 9,000톤에 이르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7. 표고버섯 수급 전망(생표고 환산기준)

단위: 톤

	2003	2004 (추정)	전 망		
			2005	2008	2014
공 급	49,968	52,623	55,665	65,689	87,809
국내생산	36,209	31,140	41,236	46,931	57,947
수 입	13,759	21,483	14,429	18,758	29,862
수 요	49,968	52,623	55,665	65,689	87,809
국내소비	47,369	50,887	52,982	63,615	86,561
수 출	2,599	1,736	2,683	2,074	1,248
1인당소비량(g)	988	1,061	1,093	1,293	1,723

# 부 록 1

## 임업 관측 월보 (밤)

## 부 록 2

# 임업관측월보 (표고버섯)

## 부 록 3

# 2005년도 임신물 관측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D202/2005. 12**

**임업관측사업**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5년 12월 일      발행 2005년 12월 일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Dongyp@chollian.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